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16년 11월 25일

도서출판 리버티
48075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undae-gu, Busan 48075,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16

Classical Liberalism: A Primer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in 2015
Copyright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5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6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Westminster,
London, UK.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계약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10-8 (03300)

나의 친구 존 블런델(John Blundell; 1952-2014)에게

차례

- 옮긴이 서문 _ 12
- 지은이에 대해 _ 14
- 감사의 말씀 _ 16
- 서문 _ 17
- 요약 _ 22

1 서론	25
이 책의 목적	25
책의 개요	26
2 고전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7
고전적 자유주의의 10가지 원리들	28
3 고전적 자유주의: 가계도	41
초기 조상들	41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두	44
성공과 재평가	50

고전적 자유주의의 현대적 부활	53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다양성	55
4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유	57
자유 의 옹호 논거들	57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65
권리들과 자유들	66
자유에 대한 억제	68
5 고전적 자유주의 도덕	70
강제와 관용	70
관용의 옹호 논거들	72
관용과 국가	80
6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	84
정부의 기원과 목적	84
사회적 정의의 미신	89
공공 선택과 사적 이익	92
정부의 정당성	97
7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	99

자생적 질서들	99
정의와 법치[법의 지배]	103
자연적 질서의 합리성	107
시민 사회	110
자생적 질서와 자연권	111
8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	113
시장의 자생적 질서	113
가격의 자생적 ‘가격’	113
명령 없는 시장	115
규칙들과 재산	116
경제적 자유의 옹호 논거들	118
정부의 불안정화 효과들	122
무역과 보호무역주의	125
9 오늘날의 고전적 자유주의	127
쇠퇴와 부활	127
고전적 자유주의의 재탄생	129
고전적 자유주의의 의미	130
고전적 자유주의의 국제주의	133
고전적 자유주의 비전	137

10 주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	141
존 로크 (1632-1704), 영국 철학자	141
버너드 맨더빌 (1670-1733), 영국계 화란 풍자가	142
볼테르 [프랑수아-마리 아루에] (1694-1778), 프랑스 작가 ...	142
애덤 퍼거슨 (1723-1816), 스코틀랜드 사회 이론가	143
애덤 스미스 (1723-1790), 스코틀랜드 철학자 및 경제학자 ...	143
토머스 제퍼슨 (1743-1826), 미국 혁명 지도자	144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1801-50), 프랑스 정치 이론가	145
리처드 코브던 (1804-1865), 영국 제조업자 및 정치가	145
존 스튜어트 밀 (1806-73), 영국 철학자 및 개혁가	146
허버트 스펜서 (1820-1903), 영국 인류학자 및 철학자	147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899-1992), 영국계 오스트리아 정치 학자	148
아인 랜드 (1905-82), 러시아계 미국 소설가 및 윤리학자	149
이사야 벌린 (1909-97), 라트비아계 영국 철학자	149
밀턴 프리드먼 (1912-2006), 미국 경제학자	150
제임스 M. 뷰캐넌 (1919-2013), 미국 경제학자	151
로버트 노직 (1938-2002), 미국 철학자	152
11 고전적 자유주의 인용들	154
마그나 카르타	154
자연권	155

제한된 정부	156
자생적 질서... ..	158
... 자비로운 안내... ..	158
... 대(對)계획과 통제	159
정의와 법치	161
경제적 자유	162
개인적 자유	164
정치적 자유	166

12 고전적 자유주의 역사 연표	168
-------------------------	-----

13 추가적인 읽을거리	174
입문	174
개관	176
고전	177
선택된 웹 링크	178

- IEA에 대해 _ 180
- 옹근이에 대해 _ 182

옮긴이 서문

이 역서는 Eamonn Butler, *Classical Liberalism: A Primer*,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5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 버틀러는 10가지 원리들의 면에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중국의 노자로부터 시작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계도를 그린 후, 고전적 자유주의가 자유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서술한다. 그 다음 고전적 자유주의를 도덕,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라는 면에서 하나하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침체했다가 부활하여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본론을 마감한다.

이 책은, 일종의 부록으로서, 존 로크로부터 로버트 노직에 이르기까지 주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별로 핵심적인 업적과 사상을 기술하고,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요 인용들을 열거하며, 930년 아이슬란드에서 창설된 세계 최초의 의회 알싱(Althing)부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자유주의 역사 연표를 제시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 자유가 심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란 이름으로 기업 활동, 특히 대기업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소비자들의 자유들과 권리들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한 국민들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기도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적 활동에 대해 생활양식 범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예들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정책들은 너무나 문제가 크다.

물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정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또, 자유를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정당이나 이익 집단이 존재할 경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잘 알 때 정책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오늘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옹건이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고전적 자유주의를 배워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부유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현대 문명의 존재 자체를 가져온 사상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가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옹건이는 변함없이 흔쾌히 번역 출판권을 주신 경제문제연구소(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동 연구소의 편집·기획 이사 필립 부스(Philip Booth) 교수께 감사한다. 옹건이는 또한 이 책의 편집을 항상 성실하고 능숙하게 수행해 준 김지혜 선생에게도 감사한다.

지은이에 대해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는 지도적인 정책 싱크탱크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the 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이다. 그는 경제학과 심리학 학위들, 철학 박사 학위, 그리고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에 그는 워싱턴에서 미 하원에 근무했고, 미 시건 주 힐스테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며, 애덤 스미스 연구소를 창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영국의 전국 자유 기업상(National Free Enterprise Award)의 과거 수상자이기도 하다.

에이먼은 선구적인 경제학자들인 밀턴 프리드먼, F. A. 하이에크 그리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관한 책들의 저자이자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에 관한 입문서와 《축약된 국부론(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의 저자이다. IEA를 위해, 그는 애덤 스미스, 루트비히 폰 미제스 그리고 공공선택론에 관한 입문서들을 썼고, 그의 《자유 사회의 기초(Foundations of a Free Society)》는 2014년 피셔 상을 받았다. 그는 임금 및 가격 통제의 역사, 그리고 IQ에 관한 시리즈 책들의 공저자이다. 그가 낸 최근의 대중 간행물들인 《시중에서 최고의 책(The Best Book on the Market)》, 《부패한 영국(The Rotten State of Britain)》 그리고 《대안적 강령(The

Alternative Manifesto)»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그는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빈번하게 기고한다.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나는 매드센 피리(Madsen Pirie)에게 그의 초기의 자문
과 투입에 대해, 그리고 애덤 스미스 연구소의 나의 다른 동료들에
게 그들의 인내에 대해, 감사한다.

서문

고전적 자유주의는 현대 정치 및 사회 철학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다. 참으로, 우리는 현대 세계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이 이러한 집합의 사상들에 대한 신봉자들의 노력이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스스로를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의 운동, 주장, 사유와 분석이 없었더라면, 집약적인 성장의 지속, 종교적 정체성의 사유화 그리고 노예제의 폐지와 같은 현대성의 본질적인 특징들의 다수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자유주의는 오늘날 불충분하게 이해되고 있고, 종종 잘못 표현되며(많은 경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유 방식들, 두드러지게 보수주의와 잘못 동일시되고 있다. 하나의 특별한 어려움은 ‘사회 민주주의자(social democrat)’를 의미하는 리버럴(liberal)이라는 용어의 미국식 사용으로 영어권 세계에서 전통적인 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나타내는 데 새로운 호칭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방식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자(liberal)’가 자신의 전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럽 대륙에서는 그렇지 않다.)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 널리 채택되는 용어가 되었지만 여러 이유들로 이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이 점을 인정하면, 에이먼 버틀러의 기술은 특히 바람직하다. 그

것은 사고 체계로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을지에 대한 놀랍도록 명쾌하고 잘 진술된 입문서다. 이 책의 하나의 귀중한 특징은 그것이 차이점들과 다양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유와 공공 정책 질문들에 대해 여전히 일관성 있는 접근법인 것 안에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물론 사회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제기하는 몇몇 질문들과 이 질문들이 더 탐구될지 모르는 방식들에 관해서는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역사적 기술이 나타내듯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명백히 영국 역사의 삽화들에서 정치 운동으로서 그리고 법과 정부에 관한 사유 방식으로서 뿌리와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록 더욱 일찍이 마그나 카르타와 중세 입헌주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히 하듯이, 또한 유럽 대륙의 역사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에(F. A. 하이에크가 그 나라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희망이 가장 없는 나라’로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이 있다. 이것은 계몽주의와 칸트 같은 사상가들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또한 르네상스와 살라망카학파와 관련되는 사람들과 같은 중세 후기 사상가들로,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스칸디나비아와 폴란드-리투아니아에 이르는 입헌 정부와 왕권 제한의 중세 전통으로, 더욱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의 유럽 기원은 그것을 유럽적 사유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서양’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그 지향이 보편적인 시각이고 전 세계의 문화들과 문명들에서 보이는 양립 가능하고 호의적인 전통들에 의존할 수 있는 시각이다.

이 책이 숨겨 있게 진술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중대한 견해들에 덧붙여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또한 살아가는 법의 많은 태도들 및 특질들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인간 조건이 개선될 수 있고 지난 2세기 동안 개선되었다는 낙관주의, 자신이라는 그것이다. 또 하나 관련되는 것은 전향적으로 되는 것, 과거를 보기보다 미래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개성과 자치 혹은 자율에의 관심 집중을 확인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외바름의 그것, 자기의 적들과 대화자들에게 악의적 목적과 의도를 돌리기보다 그들을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많은 현대 담화에는 없는 특질—일 것이다.

이 저작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하는 일과 또한 추론에 따라 무엇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닌지 서술하는 일도 탁월하게 행한다. 명백히 그것은 사회주의와 구별되고 사회 민주주의와 사회적 혹은 ‘뉴(new)’ 리버럴리즘과 같은 다른 형태의 평등주의적 집합주의와 구별된다. 그것은 또한 보수주의와 같지도 않은데, 대체로 더욱 낙관적이고, (신념이나 전통에 반대되는) 이성을 더욱 신뢰하며, 물려받았거나 전통적인 제도들을 덜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을 때 명백해지고 제안된 추가적인 읽을거리의 많은 부분을 읽을 때 더욱더 그렇게 될 것들 중 하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전혀 보수적이지 않아서,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

들의 생활 조건과 방식에 이미 막대하고 심오한 변화를 야기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구질서의 많은 부분을 일소한 근본적인 신조라는 점(예를 들면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된 점)이다. 이것의 한 예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페미니즘 사이의 역사적 관련인데, 대부분의 ‘첫 번째 물결(first wave)’ 페미니스트들은 열렬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었고 그 입장의 많은 예들은 오늘날에도 발견된다.

하나의 운동 조직으로서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일단의 사상으로서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많이 변했고 많이 향상되었지만, 이 책이 지적하듯이, 또한 누그러지기도 했었고,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이것을 잊고 오히려 현 상황의 방어자가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추진력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의 결정적인 부분을 잃는다. 이 저작이 또한 그 전통 안에서의 새로운 지적인 전개들에 관한 자신의 논의로도 명백히 하듯이, 이것은 오직 주해와 논평만 필요한 성스러운 구절들과 영속적인 결론들만 가진 일단의 고정되고 완성된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기서 서술된 기본적인 통찰들이 끊임없이 다시 적용되고 다시 생각되어, 새로운 견해, 분석 그리고 제안이 명확히 표현되고 히드라의 오류 머리들(hydra's heads of error)이 공격되는 활기차고 살아 있는 지적 운동이다.

IEA에서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운동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명시적으로 특정 정치 철학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목표는 일정 접근법들을 배제하는 반면 다른 접근법들에는 열려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비록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목표와 양립 가능하고 조화하는 세계의 사유와 이해 방식에 도달하는 같은 정신의 철학들과 운동들 중의 하나이다. 그 자체, 이 책은 IEA의 목록에 고마운 추가물이고 현대의 형성적 철학들(formative philosophies)의 하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5년 5월

경제 문제 연구소

교육 이사

스티븐 데이비스(Stephen Davis)

이 모노그래프에 표현된 견해들은, 모든 IEA 출판물들에서 그렇듯이, 필자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본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종전 직원들의 견해들도 아니다. 강연의 출판과 같이 몇몇 예외들이 있지만, 모든 IEA 모노그래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적어도 두 명의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에 의해 익명의 동료 심사를 받는다.

요약

-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생활에서 개인의 자유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들은 상이한 사람들의 자유들이 갈등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유에 대한 한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관해 의견이 갈리지만,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어야 하고 강압의 사용이 극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널리 의견을 같이한다.
- 그들은 개인이 집합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얻는 제한된 대의 정부를 요구한다. 정부는 그 자신 법의 지배에 의해 구속되어야 하고, 재판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리들과 과정들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정확한 역할에 관해 의견을 달리 하지만, 대체로 개인들에 의해서건 정부들에 의해서건 강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작은 국가들 그리고 알려져 있는 규칙들에 의해 구속되는 국가들을 요구한다. 정치의 주요 문제는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단 그들이 권력을 가질 때 그들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 고전적 자유주의는 미국식 리버럴리즘과 같지 않은데, 후자는 사회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나 국가에 많은 경제적 권력을 준다.

그것은 원자론적 사상도 아니다. 그것은 개인들을, 많은 가족적, 도덕적, 종교적 혹은 기타 헌신들을 가진, 다양한 중첩되는 집단들의 구성원으로서 본다. 그러한 시민 사회 제도들은 중앙 국가 권력에 대비한 유용한 방패이다.

- 자유 언론과 상호 관용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평화로운 협동을 위한 본질적인 기초로서 간주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협동이 중앙 집중적으로 계획될 수 있을 어떤 것보다도 무한히 더 복잡하고 효율적이며 적응적인 (시장, 관습, 문화 그리고 언어와 같은) 자생적인 사회 질서들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 경제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부(富)가 정부들에 의해 창조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상호 협동에 의해 창조된다고 믿는다. 번영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발명하고, 창조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궁극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들을 자발적으로 상호 이득을 위해 교환하는 것—자유 시장 경제의 자생적 질서—을 통해 생긴다.
- 고전적 자유주의는 앵글로-색슨 영국과 그 너머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대개 존 로크 (1632-1704), 애덤 스미스 (1723-90) 그리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과 같은 사상가들의 견해들에서 유래한다. 최근에는, 그것은 F. A. 하이에크 (1899-1992)와 밀턴 프리드먼 (1912-2006)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되었다.
- 상이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상이한 자유 옹호 논거들을 개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 자체 선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개인들이 누리는 자연권 사상에 호소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이 오직 사회 계약으로 구현된, 법률들에 복종하겠다는, 자기들의 동의에서만 유래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및 정치적 자유가 그저 모든 사람을 더 낮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관용에 대해서도 상이한 옹호 논거들을 개진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일을 하게 강제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해롭다고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활양식 선택들에 의해 다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그것들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사상들과 견해들을 허용하는 편익들을 언급한다.
- 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정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신념과 한 개인을 다른 사람이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감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들의 스펙트럼이다. 그것은 최근 몇 십 년간 부활을 누렸지만, 지금은—자유를 파괴하고 싶은 집단들에 확대되어야 하는 자유와 같은—새롭고 절박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1 서론

이 책의 목적

이 입문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리, 인물 그리고 주요 발전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할 작정이다. 이 책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일반적인 개념들을 이해할지 모르나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원할 학생들과 일반 독자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넓은 스펙트럼의 견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모두는 개인의 자유와 폭력의 극소화를 자신의 최고 우선순위로 간주하지만, 한 쪽 끝에 리버테리아니즘(libertarianism)에 가까운 어떤 것에서 다른 쪽 끝에 더욱 보수적인(conservative) 견해들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을지 모른다.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확고하게 믿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약간의 행정과 사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본다. 스펙트럼의 상이한 지점들에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은 그 정부 역할이 얼마나 크고 넓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책의 개요

제2장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점들이 무엇이건 그들을 통합하는 열 가지 핵심 원리들을 개설한다. 그 다음 제3장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앵글로-색슨 뿌리로부터, 종교 개혁, 계몽주의 그리고 혁명들을 거쳐, 그것의 19세기 침체와 오늘날 그것의 현대적 부활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진술한다.

제4장은 상이한 전통들로부터 온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지닌 상이하고 종종 갈등을 일으키는 견해들을 개설하면서 자유의 옹호 논거들을 고찰한다. 그 다음 제5장은 도덕에 관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들을 고찰하고, 개인들로부터건 국가로부터건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이 그것들에 대해 가지는 중심적 위치를 고찰한다. 제6장은 그 국가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관한 공통스러운 논쟁을 개설한다. 제7장은 인간 사회들이 대개 자율적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대규모 중앙 당국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공적 편익을 낳는다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이유를 설명한다. 제8장은, 시장과 가격 같은 자연적인 제도들의 진화 덕분에, 이 점이 또한 경제에서도 사실임을 보여준다.

제9장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고의 최근의 부활과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 안에서 대두된 몇몇 새 학파들을 개설한다.

이 책은 주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공헌의 개요, 고전적 자유주의 쟁점들에 관한 몇몇 중요한 인용들,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개에 역사 연표, 그리고 추가적인 읽을거리로 마감한다.

2 고전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을 가장 많이 규정하는 것은 그들이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에 부여하는 우선순위다. 물론 인간은 또한 다른 가치들—정직, 충성, 안전, 가족 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생활*에 관해서라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개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다른 개인들이나 당국으로부터 오직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 받고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유가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동시에 동일한 장소로 옮길 수 없다. 그리고 자유는 당신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강도질하거나, 위협하거나, 강제하거나, 공격하거나,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가? 고전적 자유주의는 단일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교조적 집합의 규칙

들이 아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그리고 정부) 행동에 대한 한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해답이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억제하기를 원하는 누구든 매우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데 널리 의견을 정말 같이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10가지 원리들

고전적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모두 의견 일치를 보는 열 가지 원리들을 열거할 수 있다.

1. 자유의 추정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freedom or liberty)(이 단어들은 영어에서는 상호 교환 가능하다)를 *지지하는 추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생활에서 자유를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결론에 대해 상이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는 *그 자체 선*(good in itself)이다. 그들은 심리학으로부터, 선택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을 강제되는 것보다 변함없이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 자연권 옹호자들은 자유란 신이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이라고 말한

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란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과 갈등을 피하려면 동의해야 할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에 근거해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진보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암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란 인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인본주의(humanist)* 주장을 한다. 다른 사람들에 통제되는 누군가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부호(cipher)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적(utilitarian)*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방식으로서 중요시한다.

2. 개인의 최우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집합체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어떤 집합적 편익을 위해 한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적어도 어떤 매우 타당한 정당화 근거가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상이한 이유들이 있다.

한 견해—*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라고 불린다—는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넘어서 집합체가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확실히,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 이상인데, 집이 벽돌들의 집합 이상인 것과 꼭 같다. 그러나 *사회(society)*는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건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은 *개인(individual)*이다. 그 공동

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들을 넘어서 어떠한 집합적 ‘공익 (public interest)’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개인들은 의견이 다르다.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반할지 모른다. ‘유일한 집합체(the collective)’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현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이익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집합의 이익들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한 경험이다. 역사는 어떤 지도자가 잘못 생각한 집합적 선의 관념을 위해 국민들의 자유가 희생될 때 주민들에게 덮친 공포들의 예들로 폭발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시대에도, 히틀러의 잔학 행위, 스탈린 치하의 기아와 숙청, 혹은 폴포트가 명령한 대량 살인을 회고하기만 하면 된다.

넷째, 사회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 복잡하고 동태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지 어떤 단일의 당국도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개인들이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릴 훨씬 더 나은 입장에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두어야 한다.

3. 강제의 극소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나 자기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강압이나 [강압의] 위협을 사용하는 세계가 아

나라 사람들이 평화로운 합의로 살아가는 세계를 원한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강압의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정부와 사법 당국에 준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그것도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권력이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어떠한 강압의 사용이든 그것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제한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이로운지도 보여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더욱 일반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동을 억제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4. 관용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자유에 간섭할 주요—혹은 아마도 유일할—타당한 이유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들을 찬성하지 않거나 그것들을 거슬리게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 언론을 옹호하는데, 설사 어떤 사람들이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혹은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도—불쾌하게 여길지 모르는 일들을 하는 데 사용할지라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클럽, 노동조합 혹은 정당과 같은 집단들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어야 하는데, 설사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의 목적과 활동을 불쾌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들은 재화와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지어 (마약과 매춘 같이) 다른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을지 모르는 것들도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생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견해든 지니고, 자기가 원하는 무슨 종교든 실천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관용을 그저 그 자체 좋은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들은 관용과 상호 존중을 평화로운 협동의 필수적인 기초로, 그리고 이롭고 잘 작동하는 사회의 창조의 필수적인 기초로, 본다. 인간 차이점들은 우리의 사회생활의 사실이자 항상 사실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차이점들이 제거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유토피아 시도들에 깊이 회의적이다. 그것이 전제될 때, 항상 관용은 기능하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5. 제한된 대의 정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강압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직

당국만이 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권력이 어떤 공평무사한 ‘국가(state)’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머지 사람들과 동일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실제 인간들에 의해 행사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권력이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정치가들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 종종 ‘공익(public interest)’을 인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덧붙여서, 영국 철학자 존 로크(1632-1704)와 같은 사회 계약 이론가들은 정부 권력이 개인들로부터 나오지 반대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자기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들의 몇몇을 정부에 넘겨준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넘어서 정당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전 목적은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혁명 사상가 토머스 페인(1737-1809)이 주장했듯이, 국민들은 이 신뢰를 깬 어떤 정부도 전복시킬 권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은 최후의 수단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대의 입헌 민주주의*(representative and constitutional democracy)가 우리의 입법자들을 국민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데 지금까지 발견된 최상의 수단이라고 믿는다. 선거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나쁜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선거민이 정보가 더 낮고 더욱 방심하지 않을수록, 선거들은 더 잘 작동된다.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그것의 한계를 가

지고 있다. 그것은 몇몇 결정들을 내리는 데는 좋은 방식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은 별로 없다. 보통 우리는 개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선택들을 내리게 하는 것이 더 낫다.

6. 법의 지배

권력을 제한하고 대중을 위해 더 큰 안전을 창출하는 다른 원리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법률들에 의해 통치되어야지 정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결정들에 의해 통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미국 정치가 존 애덤스(1785-1836)가 ‘인치가 아니라 법치(a government of laws, and not of men)’라고 부른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법이 성, 인종, 종교, 언어, 가족 혹은 어떤 다른 부적절한 특징들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꼭 그만큼 정부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above the law)’ 있어서는 안 된다.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데는 개인들이나 정부들에 의해 조종될 수 없는 독립된 법원들을 가진 사법(司法) 제도가 필요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도록 인신 보호 영장, 배심원에 의한 재판 그리고 적법 절차와 같은 기본적인 사법 원리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법의 지배는 또 하나의 행운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그것은 삶을

훨씬 더 예측 가능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그리고 행동하지 않을지—예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계획들이 다른 사람들의 변덕에 의해 부수어질 두려움 없이 장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

7. 자생적 질서

당신은 크고 복잡한 사회가 그것을 경영하는 데 크고 강력한 정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정부가 사회 질서의 기초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복잡한 사회 제도들은 대개 계획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인간 계획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 결과다.

예를 들면, 언어나, 우리의 관습과 문화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을 낳는 데 어떠한 중앙 당국이나 의식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한 제도들은 그저 자라서,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셀 수 없이 많은 상호 작용들에서 진화할 뿐이다. 만약 수세기에 걸쳐 그것들이 유용하고 이로운 것으로 입증된다면, 그것들은 지속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바뀌거나 포기된다.

오스트리아 사회 이론가 F. A. 하이에크(1899-1992)는 그 결과를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 불렀다. 자생적 질서들은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다. 그것들은 개인들이—문법 규칙들과 같이—행동

규칙들을 따르는 것을 통해 진화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그 행동 규칙들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심지어 인식조차 하지 못할지 모르고 그 행동 규칙들을 거의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단일의 마음도 그러한 복잡한 질서들을, 개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정치가들과 관리들에서의 어리석음의 극치다.

8. 재산, 거래 그리고 시장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부가 정부들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서 개인들의 상호 협동에 의해 창조된다고 믿는다. 변형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호 이득을 위해, 발명하고, 창조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들을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것—자유 시장 경제(free-market economy)의 자생적 질서—을 통해서 온다.

이와 같이 부를 창조하는 사회 질서는, 전문화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사유 재산과 계약을 존중하라, 라는 간단한 규칙에서 생긴다.

자유와 재산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장 경제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부는 사람, 재화, 서비스, 자본 그리고 사상의 자유로운 이동에 달려 있다. 그리고 사적 부의 존재는 사람들이 약탈적 정부의 착취에 저항하는 것을 더 쉽게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재산이 강압에 의해 획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은 창조된다—작물은 재배되

고, 건물은 지어지고, 혁신은 개발된다. 재산은 명백히 소유자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더 넓은 번영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9. 시민 사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자발적인 결사들이 정부들보다 더 낫다고 믿는다. 그들이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원자론적이며*(atomistic),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고, 부분적으로 그들의 가치들을 형성하는 가족과 집단과 공동체—클럽, 협회, 노동조합, 종교 단체, 학교, 온라인 공동체, 캠페인, 자조 집단, 자선 단체 그리고 우리가 *시민 사회*(civil society)라 부르는 모든 다른 제도들—에서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법의 중요한 일부이다. 우리의 견해, 가치 그리고 행동은 그것들 안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협동이 수립될 수 있는 상호 이해의 기초가 된다. 참으로, 이와 같은 결사의 자유가 없이는 협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시민 사회는 또한 개인과 정부 사이의 *완충 장치*(buffer)가 된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모두 고립된 개인들이라면, 우리의 자유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의해 쉽게 억압될 것이다. 그러나 복합적이고 교차하는 시민 사회계(界)들은 정부 행동에 대한 대안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예를 들면, 국가 복지 대신 민간 자선

단체—또한 저항할 수단이 되는 공통 이익과 힘을 우리에게 준다.

10. 공통의 인간 가치들

그렇다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상호 편익을 위해 우리의 공통의 인간성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법에 따른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원리들을 지지한다. 그것들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상호 존중, 관용, 불침해, 협동 그리고 자발적 교환에 토대를 둔 번영하고 자생적인 사회 질서의 기초들이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자유 언론, 자유 결사, 법의 지배 그리고—통치자들이 성자 같지 않은 것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성자 같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당국자가 너무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정부에 대한 한계를 지지한다.

그들은 좋은 사회가 오로지 인간 자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상이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평화로운 협동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지만 우리의 삶을 지휘하지 않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사법 제도를 가진, 법에 따른 자유와 평등을 지지한다.

경제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생산과 교환의 자유, 그리고 사람, 재화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한다. 그들은 사유 재산을 옹호하며, 과세에 대해서도 대중에게 방위를 제공하고 시장에 의해 과소 공급되는 어떤 다른 ‘공공재들(public goods)’을 제공하

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만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작고, 자유방임적인 야경 국가로 흔히 회화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사법 하나만도 유지하는 데 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제도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보호가 작은 과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상자 1 미국식 리버럴리즘에 관한 주해

미국인들이 ‘리버럴리즘(liberalism)’을 말할 때, 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아주 다른 어떤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구자유주의(old liberalism)’나 ‘유럽식 의미에서의 자유주의(liberalism in the European sense)’라고도 알려져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자유, 강제의 극소화, 재산권과 자유 교환, 그리고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제한되고 책임 있는 정부에 집중한다.

미국식(American) 혹은 ‘뉴 리버럴리즘(new liberalism)’ 혹은 ‘현대 리버럴리즘(modern liberalism)’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공유하지만 자유란 단지 강제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그것은 부권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여긴다.

미국식 리버럴들은 국가가 국민들을 그들 자신들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종종 재산 소유권에 의해 야기된다고 국

가가 믿는 부당한 권력 불평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관대한 복지 제도를 요구하고 근로자들의 (더욱 강력한) 고용주들에 반대해서 근로자들을 후원한다. 그들은 경제적 자유가 (높은 고용과 같은) 공공 편익을 낳는다는 것에 회의적이며,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재를 제공하고 시장이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정책들에 매우 회의적이다. 그들은 정부 권력이 그것의 유용성을 훨씬 넘어 쉽게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최선의 의도를 가진 정책들도 종종 암울하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한다.

3 고전적 자유주의: 가계도

초기 조상들

몇몇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의 사상의 기원을 지도력의 역제를 옹호했던 중국 철학자 노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는다. 2000년 전, 인도 황제 아쇼카도 역시 자유와 정치적 관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슬람은 6세기 자신의 최초의 기원부터 경제적 자유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현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먼 사촌들이다. 직계는 유럽인이고, 참으로 특히 영국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대니얼 해넌(Daniel Hannan, 1971-)에 따르면, 그것은 앵글로-색슨 사람들로 시작되는데, 그들은 대략 400년부터 우리가 지금 영국이라고 부르는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앵글로-색슨 영국

침입하기 어려운 섬나라로서, 영국은 유럽 대륙보다 더 큰 안정성을 누렸고, 안전한 재산 보유 및 사법 제도가 생겼다. 그것은 누구도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다—그저 독립심을 가진 앵글로-색슨 사람들이 자신의 발고랑에 황소처럼 서서 침입자들에 대항해서 자신의 권

리들을 확립한 점진적인 결과일 뿐이었다.

후에, 800년 무렵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바이킹들과 공존할 필요로 공통어와 공통 법 제도들이 똑같이 의도하지 않고 출현하게 되었다. 어떠한 유럽식 봉건적 권위도 없어서, 이 용광로에서 나온 것은 관습법(common law)—권력자들이 규정한 군주 법(law of princes)이 아니라 개인들의 상호 작용들을 통해 진화한 국법(law of the land)—이었다.

관습법은 오늘날 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요 기초로 남아 있다. 그것은 군주적이 아니었고 국민들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것은 사적 소유와 계약을 존중했다. 그것은 법 앞의 자유를 인정했다. 아무도 행동하기 전에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명확하게 금지되지 않은 어떤 것이나 합법적이었다. 법은 모든 사람의 불일이었고, 사법관들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 심지어 왕조차도 원로회(council of elders), 즉 위탄(Witan · 현인들)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왕의 충성을 요구했을—것이고 반대 방향이 아니었을—것이다.

침입과 재탄생

이것은 1066년 노르만 침입과 군사적 정복으로 돌연 끝나게 되었다. 영국은 유럽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는데, 그들의 언어와 권위주의적 방식들로 그들은 영국 주민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들은 봉건제, 농노제, 사회적 층화(層化) 그리고 하향식 입법—앵글로-색슨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자유들 및 제한된 정부와 완전한 반대

—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2-3세대 안에, 노르만 지주들은 자신들을 더욱더 지방 사람들과 동일시했다. 반면 자신의 프랑스인 조신들 뒤에 고립된 존 왕(1166-1216)은 더욱더 분리되고 전제적인 것으로 보이게 됐고, 자신의 세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법을 조작했다.

그 결과 1215년에 귀족들은 왕에게 권리들과 특권들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 서명하도록 강제하였다.

헌장의 대부분은 국민들의 예로부터의 **재산권들(property rights)**—오늘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종류의 안전한 토지 보유권들—을 거둬 주장하는 것과, 그것들을 관리의 자의적 약탈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헌장의 주요 부분은—교회의, 시들의 그리고 일반 주민의—**예로부터의 자유들과** 배심원에 의한 재판 및 적법 절차와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들을 구체화했다. 그것은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왕도 ‘국법(law of the land)’에 의해 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정부는 **법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비록 존이 헌장을 거부했지만, 그는 직후에 죽었다. 그의 아들 헨리 3세가 미성년자로서 왕좌에 올랐고, 권력은 미묘하게 군주제로부터 귀족들의 의회로 이동하였다. 헨리는 1225년에 헌장을 자발적으로 재발포했다. 그러나 귀족들과의, 대개 전쟁을 위한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대립들로 인해 영국에서 또 하나의 고전적 자유주의 이니셔티브—**의회**의 창설—가 이루어졌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두

문화적 및 종교적 혁명들

‘자유는 권력들의 갈등으로 확립된다,’고 영국 역사가 액턴 경(1834-1902)은 썼다. 유럽 본토에서는, 서로마 제국과 후속되는 봉건 영주들과 군주들의 권위는 기독교 교회의 대두로 도전받았다. 그들이 자유 제도들을 의식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부과한 상호 제한들은 더 큰 개인적 자유의 기회를 열었다.

유럽에서 두 가지 다른 역사적 사건들이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을 공고하게 했다. 대충 15세기와 17세기 사이 르네상스였던 문화적 혁명의 주요 부분은 1450년 유럽에의 인쇄술 도입이었다. 이 간단한 발명은 과학과 학문에 대한 엘리트들의 독점을 깨뜨렸고, 보통 사람들에게 지식이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더 이상 아무도 안내와 허락을 얻기 위해 당국에 자문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점화된 종교 개혁은 이것을 더욱 보강했다. 그것은 가톨릭교회의 권력에 도전했는데, 엘리트 성직자의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의 자부심을 끌어올렸다.

이 모든 것은 기성 권력 제도들에 비해 개인의 지위와 중요성을 올리는 데 이바지했다. 이 더 큰 자유가 가장 번창한 국가들에서는, 또한 예술, 공업, 과학 그리고 상업도 번창했다.

정치적 혁명

정치적으로도 역시, 사태가 변하고 있었다. 친(親)자유 대중 운동 단체, 수평파(Levellers)는 1650년대 영국을 휘몰아쳤다. 그것은 존 릴번(1614-57)에 의해 지도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권리들이 정부나 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기보다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식적 독점을 무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책들을 출판한 것으로 체포되어, 악명 높은 성실(星室)법원(Star Chamber)에 출정했지만, (자기가 그들과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판사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의 절차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였다. 심지어 칼[목과 손을 널 뺀지 사이에 끼우는 옛 형틀]을 쓰고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유와 평등한 권리들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였고, 불가피하게 그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차후에 여러 번 그렇게 되듯이—투옥되었다.

릴번은 대중적인 반(反)기성 인물이 되었다. 그는 국가 독점의 종식을 청원하였고 권리 장전에 해당하는 것을 한 자 한 자 썼다. 이것은 리처드 오버턴(1610-63년경)에 의해 더 행해졌고, 그도 역시 귀족원의 사법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투옥되었는데, 그는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성문 헌법적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을 요구했고, 그는 이런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군주의 권력의 억제

영국 내전(1642-51) 후에, 현 군주, 찰스 1세가 재판관을 받아 대역죄로 처형되었는데, 정부 권한에 대한 한계의 뚜렷한 주장이다.

그러나 왕과 의회 사이의 권력관계는 이미 역전됐었다. (계속 그러했듯이) 대브리튼의 섬나라는 빈번한 침입들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할 상비군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 대륙과 달리, 군주는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찰스는 해외 전쟁을 위한 세금을 올리는 것에 의회가 동의할 것을 필요로 했다.

이것은 시기심 많은 군주를 좌절시켰고 많은 갈등들을 야기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찰스는 의회를 중지시켰고,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으며, 의회의 가장 저명한 의원들 5명을 강제적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는 국민들의 권리들이 확보된, 국민들과의 암묵적 계약을 깼었다.

명예혁명

올리버 크롬웰 독재치하의 공위(空位) 기간(1649-60) 후에, 찰스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 의회를 달래야 했을 때 권한의 균형은 다시 명백해졌다. 그의 후계자, 찰스의 둘째 아들 제임스 2세가 폐위되었을 때, 윌리엄(화란의 오렌지공)과 메리를 왕권에 요청한 것은 의회였다. 권한이 국민들로부터 나와 군주로 간다는 그 방향은 더 명백할 수가 없었다.

1689년에, 윌리엄과 메리는 권리 장전에 서명했는데, 이것은 영국 신민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의 주장이고 그런 권리들과 자유들을 침해했다는 근거에서 제임스 2세의 제거를 정당화한 것이었다. 그것은 군주로부터 독립된 사법 제도,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의 제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정부에 청원할 권리, 자유선거,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들(cruel and unusual punishments)’의 제한을 요구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1세기 후에 또 하나의 위대한 고전적 자유주의 신(新)계획, 미국 자신의 권리 장전을 초래했을 것이다.

존 로크(1632-1704)

존 로크는 더 옛날의 고전적 자유주의 교의들을 끌어 모아 곧 알아 볼 수 있도록 현대적인 본체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고로 만들었다. 그의 목적의 일부는 제임스 2세가 어떻게 사회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상실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가 주장하기를,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안전을 증가시키고 자기들의 일반적인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만 주권에 복종한다. 이 계약이 깨질 때, 개인들은 주권자에 대항해서 봉기할 온갖 권리를 가지고 있다.

로크는 또한 자연권(natural rights) 이론도 개발하여, 정부 이전에 존재하고 정부에 희생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하는 정부들은 불법이

었다.

그러나 로크의 사상에 중심적인 것은 사유 재산이었는데, 이것은 그저 물리적 재산만이 아니었다. 로크는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 신체 그리고 노동에 대한 소유권—자기 소유권(self-ownership)—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정적인 이해로부터, 국민들은 또한 자기가 창조하는 데 개인적인 노력을 들인—‘자기의 노력을 섞은(mixed their labour)’—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그는 추론했다. 그러므로 자기 소유권의 원리는 그러한 소유권이 법 앞에서 확고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만든다.

이런 견해들은 미국 혁명의 배후에 있는 많은 사상가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계몽주의

18세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고의 또 하나의 부활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몽테스키외(1689-1755)는 자유 사회와 자유 경제에서 개인들이 자기들 사이에 평화로운 협동을 유지할 방식으로 행동해야—하고 어떤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한다는 견해를 전개했다. 그러므로 그는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체계—미국 사상가들을 특징지을 또 하나의 견해—를 요구했다.

그러는 동안, 교회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지적 반란의 증가로

볼테르(1694-1778)와 같은 사상가들은 이성과 관용, 종교적 다양성 그리고 인도적인 사법(司法)을 요구했다. 경제에서도, 튀르고(1727-81)와 같은 지식인들은 무역 장벽의 폐지, 조세의 단순화 그리고 더욱 경쟁적인 노동 및 농업 시장들을 옹호했다.

스코틀랜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1723-90)는, 몽테스키외의 방향에 따라, 많은 경우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로운 결과—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이름 붙여진 효과—를 낳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했다. 자기 이익이 우리의 경제생활을 움직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편익이라도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 고객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

스미스는 공식적 독점, 무역 제한, 높은 세금 그리고 정부와 기업 사이의 숨이 막힐 연고주의를 저주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들이 대중들을, 특히 근로 빈곤층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견해들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장기간의 자유 무역과 경제 성장을 안내했다.

법치 국가

그러는 동안에, 유럽 대륙에서는,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1724-1804)와 같은 사상가들이 ‘정당한 국가(just state)’ 혹은 법치 국가(Rechtsstaat)의 원리들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후자는 18세기 후기 미국 및 프랑스 헌법들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칸트는 다양한 개인들 사이에 영구적인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는 길로서 성문 헌법을 옹호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는 그것을 인간 행복과 번영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보았다. 그는 도덕 교육이 [다양한 개인들 사이의] 그런 차이점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의 목적들을 일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견해를 떨리했다. 국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편익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헌법은 국가를 단결시킨 것이다.

법치 국가에서, 시민 사회의 제도들—클럽, 사교 단체 그리고 교회와 같은 자발적 결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데서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부 권력은 권력 분립에 의해 억제될 것이며, 판사들과 정치가들은 법에 책임을 지고 법에 의해 구속될 것이다. 법 자체는 투명하고, 설명되고, 비례적이어야 할 것이다. 강압의 사용은 사법 제도로 엄격히 제한될 것이다. 정부의 검증은 그것이 이러한 정당한 입헌 질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성공과 재평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고향

토머스 페인은 자연권과 사회 계약에 관한, 그리고 정부란 견제되지 않으면 건딜 수 없게 될 수 있는 필요악이라는, 로크의 고전적 자유주의 견해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1776년 1월에, 그는 그것들을 자신의 영향력 있는 전투 소집 명령, 《상식(Common Sense)》으

로 엮어서, 영국이 식민지 사람들과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영국을 고발했다.

그러므로 전쟁 행위가 끝난 후에 미국인들이 자신들과 자기들이 창설하고 있던 정부 사이에 새로운 고전적 자유주의 계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했다. 헌법은 로크의 천부적 불가침권 사상과 몽테스키외식의 정부 권력 분립이 주입되었을 것이다.

19세기

그러나 새롭고 급진적인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이 영국에 돌아왔다. 1833년까지는 고전적 자유주의 활동가들은 대부분의 대영 제국에 걸쳐 노예제의 폐지를 확보했고, 1843년까지는 그 개혁은 완성되었다.

또한 사회적 전선에서도,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1806-73)은—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것으로 그들의 자유를 줄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렇다는—‘무해(no harm)’ 원칙을 명확히 표현했다. 그는 또한 국가가 손을 댈 수 없는 ‘개인적 영역(personal sphere)’을 옹호하기도 했고,功利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덤(1746-1832)을 따라, 자유가 공공 편익 혹은 ‘효용(utility)’을 극대화할 최상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에서는, 수입되는 곡물에 대한 보호주의 조세를 종식시키려는 반곡물법 동맹(Anti-Corn-Law League)이 맨체스터학파로 성장

하였는데, 리처드 코브던(1804-65)과 존 브라이트(1811-89) 같은 그것의 지도적인 인물들은 무역, 산업 그리고 노동에 대해 자유방임 정책들을 요구했다.

재평가와 쇠퇴

그러나 19세기 중반 후의 급속한 산업화는, 빈약한 근로 조건, 사회적 계층화, 해직 그리고 도시 빈곤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들을 제기했다. 점차, 사람들은 그러한 병폐들을 통제하여 없애는 데 정부들에 의존했다.

그 다음 20세기에는, 유럽에서의 전쟁 행위와 위협은 민족주의 문화를 촉진했고 국가 역할에 더 큰 신뢰를 촉진했다. 각각의 전시 팽창 후에, 정부들은 다시 물러서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 전 1913년에는, 정부 지출은 프랑스에서 GDP의 그저 17퍼센트, 독일에서 15퍼센트 그리고 영국에서 13퍼센트였을 뿐이다. 그것은 지금 GDP의 퍼센트로서 그것의 대략 3배이고 절대 값으로서 몇 배 더 많다.

그러는 동안에, 물리 과학자들이 물리적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듯이,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도 역시 자기들이 인간 사회를 과학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시장들이 외부성을 가지고 있고 독점이나 실업으로의 경향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 계획이 시장들의 자연적 무질서함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더 이상 입증 책임은 개입주의자들에게 있지

않았다.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가 지배하게 하라는 자기들의 요구를 정당화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현대적 부활

정책 문제들과 고전적 자유주의 반응

그러나 개입주의자들의 분에 넘치는 신뢰는 잘못 두어진 것이었다. 경제들은 실업과 인플레이션(때때로 그들에게 불가해하게, 동시에), 저성장, 그리고 정부들이 가격을 정하거나 공급과 수요를 조작하는 주택, 에너지, 대부 및 외환 시장들에서의 위기들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커가는 복지 국가는 의존과 유인 결여의 문제들로 괴롭힘을 당했다. 정부의 크기도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하고 있었던 요구들도 줄일 길이 없는 것 같았다.

비록 그들이 수세에 놓여 있었지만, 많은 경향들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옛날의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들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여, 변화된 시대에 더욱 적합한 새롭거나 업데이트된 논거들을 개발했다. 결국 1980년대에, 이러한 지적인 혁명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 같은 세계적 지도자들의 정책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적인 발전

카를 멩거(1840-1921)를 필두로 한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과학이 아니라 개인 가치들과 행동들의 문제라고 인식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와 F. A. 하이에크(1899-1992) 같은 오스트리아학과 학자들은 국가 통제가 경제적 신호를 왜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는 동안, 시카고에서는, 프랭크 나이트(1885-1972)도 역시 개인들을 경제학의 중심부에 두었고,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이며 자기 자신의 선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을 형성할 수 있는 (화폐적 안정성과 같은)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엄격하게 국한된 정부를 옹호했다. 로널드 코스(1910-2013)는 시장들이 공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정부 개입이 그저 사태를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점을 발견했다.

1947년에 하이에크는 암울한 전후 시대에 고전적 자유주의가 직면한 몇몇 주요 도전들을 토론할 콘퍼런스에 일단의 경제학자들, 역사가들 그리고 정치 과학자들을 모았다. 오늘날 알려지게 되었듯이 몽펠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는 그 이후 성장하여 노벨상 수상자들과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회원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과 토론의 중심으로 남아 있다.

또 하나의 전후 발전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과 고든 털릭(1922-2014) 아래에서 두드러지게 된 공공선택학과(Public Choice School)였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이야기하고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 ‘합리적(rational)’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했지만 그들이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잊었다는 점을 공공선택학과는 보여주었다. 이것은 정치 과정의 결함들이나 그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익에서 드러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선거는 ‘공익’의 검증이 아니라 경쟁하는 이익들의 다툼이다. 50% + 1의 단순 과반수 규칙은 너무 쉽게 소수파가 착취되게 한다. 정치가들은 선출되기 위해서 이익 집단들을 달래야 하고,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을 위한 편익을 추출하는 데 이러한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듯이, 결론은 사적 의사 결정이—개인의 자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이 엄격하게 필요한 곳으로 국한되어야 하는—정치적 의사 결정보다 일반적으로 더 낫다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다양성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에 관해 일련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복지와 공공재의 제공에 대한 상당한 간여를 국가에게 부여할 사람들로부터 국가를 아주 적은 곳으로 국한할, 견해

에서 더욱 *리버테리언적(libertarian)*인, 다른 사람들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작은 정부는 작고 하잘것없는 사회를 의미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미국 철학자 로버트 노직(1938-2002)은 오직 보호만을 위한 최소 국가를 옹호했다. 그러한 국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미니 유토피아를 창설할 수 있는 안전한 틀을 제공하는데,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모여서, 협동하며, 자기들이 선택한 집단의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들이 어떤 자유들을 포기할지 결정한다. 덜 리버테리언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 모두는 노직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사회의 다양성과 활력을 찬양할 것이지만.

4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유

자유 의 옹호 논거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에 관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넓은 스펙트럼의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우리의 개인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생활에서의 자유를 우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를 옹호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 상이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 선으로서의 자유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그 자체 추구할 가치가 있는 선으로 본다. 기회가 주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기보다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기를 선택한다. 그들은 자기 선택과 자율을 원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유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유를 확대하고 강제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개인들과 그러므로 공동체의 복지를 증대시킨다.

자연권

존 로크로부터 토머스 제퍼슨(1743-1826)과 같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거쳐 여전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강력한 주제는 개인들이 일정 *자연권들(natural rights)*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그것들의 존재가 법률들이나 정부들에 달려 있지 않은 우리의 인간성의 고유한 부분으로 본다.

우리의 자연권들이 법, 관습, 종교, 신념, 문화 혹은 정부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천부적으로 인간에 존재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다—우리는 그것들을 판매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거저 주어버릴 수도 없으며, 그것들을 부정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바로 그 인간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록 로크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열거했을 때 많은 것들을 옹호했지만, 이 핵심 권리들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상이한 견해들이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살고 행할 권리,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내거나 선물 혹은 거래를 통해서—지만 강제로가 아니라—얻는 모든 것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남에게 줄 수 없다. 우리는 노예가 된다고 서명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은 입법으로 없앨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누리는 자연권들에 관한 이러한 사상은 왕의 신권(神權 · divine right)이라고 가정되는 것에 도전했다. 그리고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억압하려는 영국 정부의 시도들을 영국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반란에 대한 정당화로서 인용했다.

이러한 방향의 사고는 자유를 다른 모든 것 위에 올린다. 어떤 권리는 하여간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사상의 자유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리의 다른 권리들의 어느 것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런 권리들이 존중되는 사물의 상태이다.

사회 계약

영국 정치 철학자 토머스 홉스(1588-1679)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잔인성이 억제되지 않는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한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민권들과 의무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홉스가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널리 간주되지 않을지라도, 로크는 그의 사회 계약

방식을 따랐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의 자연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어떠한 *자격(entitlement)*도 없지만, 만약 사람들이 폭력을 억제할 수 있을 시민 당국을 창설하고 존중하기로 동의한다면, 그들이 새로운 기회들을 열고 그래서 *자기들의 자유들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최근에는, 미국 철학자 존 롤스(1921-2002)도, 비슷한 접근법에서, 새로운 사회를 창설할 기회가 주어지고 삶의 불확실성을 마음에 둔다면, 오직 결과들 사이의 차이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작동할 때에만 그런 차이들을 너그럽게 보여주는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계약 저자들의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계약상의 협정에 서명한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암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론들은 어떤 합리적 원리들이 정부를 지탱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저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s)’일 뿐이다.

그러나 결과들은 항상 자기들 자신의 견해들을 정당화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홉스의 사회 계약은 강력한 *군주제*—영국 내전에 의해 흔들렸던 어떤 것—를 뒷받침하는 반면, 프랑스의 혁명 사상가 장 자크 루소(1712-78)는 대조적으로 자기의 사회 계약을 *공화주의(republican)* 미덕에 근거했다. 로크에게는, 정치적 권한은 오직 피치자들의 동의를 통해서만 생기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만약 그 ‘계약’이 위반되면 *저항할 권리(right to rebel)*를 가진다—그래서 제임스 2세의 타도를 정당화한다. 반면, 롤스의 체계는 자기 시대의 더

욱 평등주의적인(egalitarian) 정치적 견해들을 반영한다.

미국의 저항은 로크의 계약 이론으로부터 용기를 얻었고, 미국의 권리 장전은 그의 자연권 견해에 크게 의거하였다. 그러나 사회 계약 이론은 반드시 자연권의 존재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홉스의 것은 갈등을 줄이려는 그저 방편일 뿐이다.

사회 계약 이론은 정부의 합리적 근거(rational basis)를 식별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재는, 삶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지만, 우리는 무엇이 좋은 사회를 구성할지에 관해 많은 대립되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합리적 합의(rational agreement)’가 가능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누구든지 ‘합리적인’ 사회라고 생각되는 것을 창설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재난이다. 루소의 청사진에 근거한 프랑스 혁명은 그러한 사고(思考)로 대중에게 닥칠 수 있을 공포를 유럽에 보여주었다.

역사와 진보

밀과 현대 미국 정치 과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1952-) 같은 소수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진보의 행진의 일부로 보았다—(개인들에게 혁신할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부를 창조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의 경제적 편익들과 (정의, 안전 그리고 대의 정부와 같은) 그것의 시민적 편익들이 아주 명백하여 그것은 불가피하게 더욱더 많은 인류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이것에 무언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한 반대 방

향으로의 강력한 경향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공공 효용

그렇지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흄(1711-76)을 포함하는 다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에서 생기는 일반 공공 편익들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들을 크게 확대하고, 개인들은 목적과 수단에 관해 자기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데 어떤 면 당국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래서 선택들은 개인들의 복지와 그리하여 전체 공동체의 복지를 증대한다.

이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복지 사이에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as if by an invisible hand)’ 하나가 다른 것을 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하며 불완전함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love thy neighbour)라는 원리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인 자기 이익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害)를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리, 관습 그리고 전통의 규칙들을 통한 안내에다가 법과 사법 제도를 통한 약간의 강제가 필요했다.

이런 사상가들에게는, 공공 효용을 야기하는 것이 자유였지, 반대 방향이 아니었다. 대조적으로 벤덤은 법의 힘에 의해 뒷받침되

지 않는다면 권리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연권들은 ‘난센스’였고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들은 ‘호언장담한 난센스 (nonsense upon stilts)’였다. 마찬가지로, 미국 재판관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1841-1935)도 자유 언론과 같은 권리들이 정부에 의해 창출되며, 오직 그것들이 전체 사회에 좋기 때문에만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많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방향의 사고에 주춤한다. 그것은 정부가 자기 좋을 대로 우리의 권리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우리의 통치자들이 우리의 것들 위에 특별한 권리를, 즉 우리가 무슨 권리들을 가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다수파가 허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권리들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소수파들을 완전히 무방비로 방치한다고 그들은 두려워한다.

개인성의 표현

밀, 스미스 그리고 흄은 더 나아가서 자유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전문화와 기회를 열어 전체 공동체에 이롭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차원이다.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들의 모든 행동들을 지시한다면, 사람들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판단, 인간 감정 혹은 도덕적 책임도 보여줄 수 없다.

방법론적 개인주의

우리가 보았듯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집합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집합체는 개인들의 생명을 넘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개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사람들이 ‘공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수학적 방정식이 없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야기하는 (이르테면, 실망, 분노 혹은 비탄과 같은) 해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기하는 (기쁨이나 행복 같은) 편익은 측정될 수 없는 인간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되지만 측정될 수 없는 집단의 편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견해와 가치를 형성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돕고 안락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유대와 본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대체로 이로운 사회 제도, 관습, 습관 그리고 도덕 규칙을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다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 나은 계획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과 규칙성들은 개인의 행동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인들의 행동들을 지시할 수 있고 어쨌든 더

나은 전반적인 사회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대단히 주제넘은 짓이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소극적(negative)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특히, 다른 개인들이나 그들이 창설하는 정부와 같은 제도들—의 위협, 강제 혹은 방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영국 철학자 이사야 벌린(1909-97)이 진술했듯이, 우리가 공중으로 10피트 떨어 수 없는 것과 같이—어떠한 물리적(physical) 제한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약간의 사상가들은 자유에 대한 적극적(positive approach) 접근법을 옹호한다.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힘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만약 당신이 너무 가난해서 롤스로이스 자동차 한 대를 살 여유가 없다면, 당신은 롤스로이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는 것이 전혀 ‘자유롭지(free)’ 않다. 그리고 더욱더 유효하게, 만약 당신이 어떤 중독에 사로잡힌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당신의 행동들은 당신 자신의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성적이고 숙려한 끝이어야 한다.

물론,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동의 자유에 대한 인간적 제한과 물리적 제한 둘 다 줄이기를 원한다. 그것은 우리의 관철염을 더는 의술과 우리를 날게 하는 기계를 우리가 발명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 견해를 의심한다. 우선, 하이에크가 설명했듯이, 그것은 *자유(freedom)*와 *힘(power)*을 뒤섞는다. 당신은 롤스로이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는 것이 확실히 *자유롭지(free)*만—당신을 막는 사람이나 법이 없다—당신은 그렇게 할 *구매력(power)*을 가지지 못할지 모른다. 당신은 공중으로 10피트 뛰는 것이 *자유롭지만*—아무도 당신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당신은 당신의 근육에 그것을 달성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적극적 자유 접근법이 인간 당국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너무 많은 신뢰를 기울인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너무나 자주, 어떤 정부나 엘리트 집단은, 마약으로 감각이 무디게 된 사람들처럼, 무엇이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다고—그리고 자기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주장한다. 이것은 대중에게 좀 건방진 것인데, 대중은 일반적으로 어떤 먼 관리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재난적인 것으로 드러난 온갖 종류의 사회 공학 프로젝트들을 정당화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권리들과 자유들

*권리들*과 *자유들* 사이의 차이는 미묘한데, 아마 그것들의 반대를 고찰함으로써 그 차이를 가장 잘 보게 될 것이다. *자유*의 반대는 *노예(slavery)*—다른 사람들에 의해 *속박되는(constrained)* 것—이다.

권리의 반대는 의무(duty)—책임(obligation)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청구(claim)—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고 당신의 자유로운 사고가 다른 누구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의 권리(right to life)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물리적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존중할 그리고 그것을 손상시키거나 죽이지 않을 법적 혹은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거래를 통해 자유롭게 재산을 획득할 수 있으며,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도둑맞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권리들이 정부 이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들은 권리들을 공고히 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정부도 그것의 다수당이 얼마나 클지라도 그것들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밀이 말하듯이, 설사 모든 사람이 우리와 의견을 달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권리들은 단순히 숫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권리들이 정확하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의하기는 어렵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재산권들의 맹렬한 옹호자이지만,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으로부터의 한 예를 들면, 당신이 한 폐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 훨씬 위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을 막는가? (혹은 오늘날, 우리는, 그것 훨씬 아

래에서 수압 파쇄 회사가 시추하는 것은? 하고 말할지 모른다.) 현실은 이런 권리들이 공공 토론에서 정련되고 법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권리들은 명백히 다른 권리들을 으뜸패로 이긴다. 밀이 설 명했듯이, 당신이 당신의 주먹을 휘두르는 권리는 나의 코에서 멈 춘다. 반면, 자유 언론에 관한 당신의 권리는 혼잡한 극장에서 거짓 말로 ‘불이야!’라고 외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하이에크가 질문했듯이, 당신이 사막에서 우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아니면 그것은 그의 생명권을 침해할까? 그것은 견해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의 ‘권리들’이 다수파 견해에 의해 결정되게 하는 데서 막대한 위험을 볼 것이다.

자유에 대한 억제

그러므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심적인 질문은, 어쨌든, 무엇이 사람들의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다—그리고 추가적인 질문들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이익들을 측정해서 합할 수 있고 가장 큰 가치를 낳은 것에 기초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아주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들은 개인적—혹은 주관적(subjective)—이고 이

런 식으로 합해질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강제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데, 그것이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에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전적으로 국가 관리들에게 안전하게 맡길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불가피하게 자기들의 결정들을 오염시키는 자기들 자신의 주관적 이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정말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입증 책임이 개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한, 사람들의 자유들을 억제하기 위해 강압의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당화될 수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들이 틀리기 쉬울지 모르지만, 심지어 그것도 멀고 잘 알지 못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피상적인 정치가들에 우리의 권리와 자유들이 좌우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

5 고전적 자유주의 도덕

강제와 관용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강제가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사람들에게 공격, 위협, 협박 혹은 폭력을 통해 자기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게 하는 것은 좋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압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개인들이건 아니면 정부건 상관없이, 만약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소유권 문제에 관해 의견이 다를 것이고,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고 공격을 억제하는 불편부당한 사법 제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런 판결들과 규칙들을 기꺼이 존중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강제력의 약간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강압의 독점권을 국가에 줌으로써 이런 딜레마를 해결한다—이것은 그들이 경계하는 제도이지만 보통 사

람들 자신들에게 강압이 내맡겨졌을 때보다 강압을 사용하는 데서 더 공평무사할 것이라고 그들이 희망하는 제도이다.

불찬성이 아니라 피해

그래서 사법은 강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강압은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제도적 강압의 적합한 사용은 매우 특징적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즉, 일반적으로 폭력과 강제 의 사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재(real)* 해이거나 *실재 해의 위협(threat of real harm)*이어야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우리가 개인들이나 개인들의 행동들을 불찬성한다고 강제가 개인들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혐오하고,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거부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에 질색이고, 그들의 태도를 경멸하고, 그들의 습관을 몹시 싫어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견해에 충격을 받을지 모른다. 우리는 심지어 그들이 마약으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거나 자기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장래의 가망을 해치고 있다고 걱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그들더러 다르게 행동하게 하려는 데 강압을 사용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신념, 태도, 생활양식 혹은 도덕적 선택이란 국가의 과감한 강제력을 사용하여

금지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말하자면, 마약 습관을 극복하는 데서—자유롭게 그들을 도우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의 행동들이 자기 자신들과 별도의 희생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강압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뜻있는(meaningful)’ 혹은 ‘올바른(correct)’ 선택을 내리기 위해 ‘교육되어야(educated)’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 명백하게,—마약의 잠재적 위험이나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칼로리의 수량에 대해서와 같이—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내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개입주의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들은 확실히 자기 자신의 목적, 기회 그리고 개인적 상황에 관해 어떤 정치가가 일찍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건, 그들의 궁극적인 선택은 여전히 개인적 판단의 문제이지, 객관적으로 ‘올바른’ 혹은 ‘그른’ 어떤 것이 아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너무나 자주 ‘교육’ 논거가 개입주의자들에 의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부과하는 방법으로서 개진된다는 점을 걱정한다.

관용의 옹호 논거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관용에 대한 그러한 강조에 대해,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비용과 피해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깊이 신봉하는 신념과 관행을 바꾸도록 설득하려고 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다. 비용은, 중세 시대의 종교적 십자군 동안 군대를 모집할 막대한 비용, 방위, 그리고 그것을 치를 조세와 같이, 재정적(financial)일지 모른다. 아니면 그것은, 로마 당국에 의한 초기 기독교도들의 괴롭힘, 종교 개혁 동안 신교도들의 박해, 그리고 1990년대 세르비아 기독교도들에 의한 무슬림들의 살해와 같이, 인간(human) 비용일 수 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1689-1755)가 지적했듯이, 만약 종교적 신념이 정치의 문제가 아니면 훨씬 더 큰 평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물론 정치적 차이점들도 역시 인류에게 막대한 희생을 끼쳤다. 그저 1세기 남짓한 사이에, 우리는 두 세계 대전들의 대량 학살, 소련에서 스탈린에 의한 숙청, 모택동의 문화 혁명, 크메르루주의 적들의 대량 살해, 기타 등등을 겪었다.

이러한 비용으로 어떤 것을 얻었는가? 사람들이 확실히 겁먹을 수 있지만, 그들이 깊이 신봉하는 신념을 바꾸는 것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바꾸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정신에 창문을 만들어 넣을(make windows into men’s souls)’수 없다. 제퍼슨에 따르면, 우리가 일부러 시도하려고 해서

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종교적 차이로 아무런 해도 끼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정부 권력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들에만 미친다. 그러나 나의 이웃이 20명의 신이 있다거나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호주머니에서 훔치지도 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도 않는다.’

다양한 이익들

관용에 대한 두 번째 고전적 자유주의 옹호 논거는, 우리가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없으며 무엇을 참을 수 있고 참을 수 없는지 전혀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을 때, 사람들의 신념, 생활양식 혹은 도덕을 바꾸는 데 강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칸트가 주장했듯이, 참을 수 있는 것에 관해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다를 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견해들을 강요하려고만 하고 있기보다 정말로 우리의 견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사야 벌린은, 더욱 최근에, 개인들이 각각—안전, 자율, 가족, 부 그리고 안락과 같은—많은 상이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 각각이 또한 그것들을 상이하게 서열화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래서 그들이 상이한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일지 모른다. 상이한 사람들의 가치들이 더 가치 있는지 덜 가치 있는지 혹은 그것들의 서열이 더 좋은지 더 나쁜지 결정하는 객관적인 방식은 없다. 부가 안락보다 더 선호되는지 여부나 가족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지 여부는 그저 견해의 문제일 뿐이다. 인간 목적들이 아주 다양한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옳은 선택들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대신에,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 존재라는 것과 그들이 똑같이 우리의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숙고된 선택들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을 존중해야 한다.

다양성의 편익들

존 스튜어트 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유일한 정당화 근거가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막는 것이지만 의견의 차이들이 그것들을 관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밀은 우리가 그러한 의견 차이들을 검열하려고 하기보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환영할 긍정적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개성, 독창성, 혁신 그리고 다양한 견해들은 인간 진보의 진화에 연료를 공급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설사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명백히 그른 견해를 표현할 때조차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른다. 그것은, 숙고하는 즉시, 옳은 것으로 드러나거나 공중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와 지혜의 약간의 요소

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지 모른다. 설사 그 시각이 완전히 그릇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만약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공허한 독단으로 전락했었을, 지배적인 견해에 대한 유용한 도전이 될지 모른다. 올리버 웬델 홈스가 말했듯이, 진리의 최상의 검증은 사상의 시장이다.

다양성과 도덕적 발전

관용에 대한 추가적인 옹호 논거는 개인들의 *도덕적 발전*(moral development)이다. 예를 들면, 프러시아 철학자이자 외교관인 빌헬름 폰 훔볼트(1767-1835)는 인간들의 가장 높은 목적이 자기 개발이고 그래서 인간 각각이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와 그것으로부터 끌어낼 가능한 최대한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오직 *야경꾼*(night-watchman) 역할만 해야 하고, 우리를 침해에서 보호하지만 우리의 자기 개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밀도 상응하는 도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간섭은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발전을 억제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들이 실제로 자기들 자신의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결코 배울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이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지시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칭찬할 만하거나 도덕적인 인간으로 존중할 수 없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과 같을 것이다.

잘못된 결과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불관용적인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달갑지 않은 결과를 가지거나, 실제로는 그것들의 입안자들이 의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이룬다는 점이다.

첫 번째의 예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이미 보았다. 비슷하게, 쾌락을 위한 마약의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입법적 시도도 비효과적이었다.

두 번째 것의 명확한 예는 미국에서 금주 시대(1920-1933)의 달갑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대개 알코올과 술집 문화의 도덕적 비난에 의해 움직여서, 금주는 업계를 지하로 몰았고, 기꺼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겼다. 그 결과는 갱단 폭력의 단계적 상승, 경찰과 공무원들에게서의 부패, 적합하게 집행될 수 없는 법에 대한 광범위한 경시였다.

매춘과 마약 같은 생활양식 선택들에 대한 다른 금지들도 마약 카르텔, 영역 다툼 그리고 인신매매의 출현과 더불어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로 야기된 (성행위 전염병과 마약 중독 같은) 실제 문제들에 달려드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지하로 내몰려서 당국의 손이 닿지 않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보통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로 바뀌고, 그들이 범죄자를 다루어야 하며, 자기들이 합법적 시장에서 얻을 품질 관리나 고객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위협에 놓이게 된다. 동시에, 집행 자원들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해를 끼치는

활동들로부터 전환된다.

세 번째, 반자유주의 정책이 의도된 것들과 반대되는 효과들을 낳는 많은 예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작업장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업적이 적절하게 인정되도록 보장하려는 시도들은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초래하였고, 사람들이 업적보다는 할당을 채우기 때문에 고용되게 하였다. 종교적 집단이나 정치적 집단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막을 생각이었던 국가 교육은 지배적인 정설로부터의 탈출이 별로 혹은 전혀 없는 독점이 되었다. 비슷하게, 종교적 혹은 정치적 억압은 결국 억압자들에 대항하는 폭력으로 폭발하게 된 분개를 복돋우었을 뿐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구소련과 같이 과도하게 강력한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독단들은 수십 년간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과학적 진보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미끄러운 경사면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사상, 태도 그리고 행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우리가 국가의 강제력을 정말 사용할 때, 명백한 정지점이 없다. 밀은 설사 모든 사람이 일정 견해나 행동이 억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할 정당화 근거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지배적인 견해의 독재(tyranny of prevailing opinion)’에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행동과 견해의 ‘개인적 영역(personal sphere)’이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멀리 있는 입법자들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정확한 상황을 더 잘 안다—은 오직 부분적일 뿐이다. 다른 이유는 자기들이 수가 더 많다는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사람들의 삶에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다수파가 추정하는 것이 너무 쉬워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런 쉬운 확신은 국가 강제의 도구들로 무장한 다수파에게 자기들의 간섭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근본적인 자유들을 빼앗을 너무나 많은 재량을 허용한다.

그것은 미끄러운 경사면이다.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에 간섭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에의 대응하는 간섭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종종, 국가 개입은 실패하거나 잘못된 결과들을 가질 것인데, 이것들은 그 다음에는 더욱 추가적인 개입을 옹호하는 논거로서 간주된다. 예를 들면, 마약 정책의 비효과성과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은 마약을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할 이유들로 사용되고, 이 점은 마약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위험을 더욱더 높이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더욱더 나쁘게 만든다.

경계선을 긋기

그래서 우리는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 국가 개입의 한계는 무엇인가? 어느 활동들을 참을 수 있고 어느 것들을 참을 수 없는가? 예를 들면,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무슨 권리들

을 가져야 하는가? 부모들은 그들을 손바닥으로 철썩 갈길 권리, 그들에 대해 할례를 실행할 권리, 혹은 그들이 태내에 있는 동안 심지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더욱 일반적으로, 코미디언들과 만화가들이 종교를 조롱할 자유 언론 권리를, 설사 그러한 행위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폭력을 자극할지 몰라도, 가져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들에는 명백한 대답이 없다. 상이한 사람들은 상이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 대답을 좁히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 가장 중대한 과업이다. 그들은 국가의 강제력이 가능한 한 정밀하게 집중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해로운 행동을 막고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한계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는 공공토론과 논쟁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우리 대신 결정하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사소한 고통만 야기할지 모르는 대량의 행동은 국가의 철권의 문제가 되기보다 주장과 설득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관용과 국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러한 주저함이 없었다. 예를 들면, 플라톤(기원전 427-347년경)과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는 만약 어떤 것이 좋다면 당국이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것

들을 법이 금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밀은 많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잠재적으로 해로우며 이 점이 우리가 그것을 비도덕적으로 여기는 바로 그 이유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비도덕적이라고 불릴지 모르는 다른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야기하지 않을지 모른다. 희생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과 같이, 심지어 그것을 이로운 것으로 간주할지 모른다. 그러한 해 없는 행위에 대해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저 인간 복지를 감소시킬 뿐이다.

모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권력에 회의적이고, 스펙트럼의 더욱 리버테리언적인 끝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증진하기보다 우리의 자유를 손상시킬 것 같다고 믿는다. 그래서 밀의 무해 규칙(no-harm rule)이 나온다. 만약 명백한 해를 야기하지도 위협하지도 않는 것들을 우리가 금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로크나 제퍼슨에게, 국가는 오로지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다. 어떤 사람의 생활양식을 명령하는 것이나 특정 종교나 윤리 규범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종교적 관용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도 역설하는 이유이다.

위협과 강압의 사용

그러나 개입주의자들은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들을 적어도 약간 끼치고 그래서 각 경우가 진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많은 나라들에서 식당과 영화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것에 대한 통상의 정당화 근거는 그것이 흡연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2차 흡연 때문에 해로운 효과를 겪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더욱 최근에는, 2차 흡연의 위험이 무시할 정도인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지금 논거는 공원에서 아이들이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볼지 모르고, 그들을 흉내 내려고 할지 모르며, 그 결과 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것이다.

그런 위험들이 약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위험들이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지 여부를—혹은 그것들이 아주 극미해서 강제적인 억제(나 벌금과 기타 처벌들)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지 여부를—질문한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지어 극미한 위험들조차도 국가가 개입할 타당한 이유로 간주된다면 어떠한 인간 행동도 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부터 전혀 보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사적 영역(private sphere)’도 없을 것이고, 개인의 자유와 법의 지배는 존재하기를 중단할 것이다.

관용은 의식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로, 즉 도덕적 존재로서의 다른 사람들의 존중이, 그리고 그들의 자유들의 존중이, 자유 사회에서 평화로운 협동의 기초라는 한 가지 이유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주 자주 우리의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 결정적인 경계선을 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들이 발생할 때, 대중도 또한 자주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요구하는데, 심지어 국가 개입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일 곳에서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그들 자신을 위해(for their own good)’ 강제하기도 한다—그때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그저 우리 자신의 가치들과 편견들에 영합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을 그들의 정신적 선(spiritual good)을 위해 강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그들의 물질적 선(material good)을 위해 그들을 강제하도록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다른 것만큼 쓸모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서 그렇게 한다,’고 영국 철학자 겸 인류학자 허버트 스펜서(1820-1903)는 썼다. 그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정부에 대한 한계를 요구하는 그저 하나의 이유일 뿐이다.

6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

정부의 기원과 목적

초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란 오로지 국민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강제를 극소화하고 평화가 지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회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믿었다. 만약 누군가가 강압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정부여야만 하고, 강압은 오직 이 목적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들의 비전은, 바꿔 말하면, —권력과 범위에서 제한되고, 참으로 정당성에서 제한된—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였다. 권력에 관해서, 그들은 공식적인 권력이 어떻게 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와 그것을 억제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범위에 관해서, 그들은 정당한 정부가 정복과 힘에 근거하지 않고 다양한 개인들—정부를 창설하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들의 권리, 자유 그리고 기회를 증진하는 것이다—의 합의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성(legitimacy)에 관해서, 로크는 정부의 권한이 시민 권리들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억제를 받아들이는 개인들로부터 생긴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정부 권한은 그 정부 권한을 주도록 그런 개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

정부 권한은 생명과 자유 같은 우리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를 제한하는 다른 타당한 이유는 인간 본성의 약함이다.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현명하지도 덜 자기 이익 추구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를 투옥할 권력들을 포함하여 막대한 강제력을 행사한다. 그들에게 그 권력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사하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절대 권한을 불신하는데, 설사 그것이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수반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정부의 기능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협소한 정부 견해가 아닌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방임 혹은 작고 퇴화된 야경꾼 국가(night-watchman state)를 신봉하는 것으로 종종 희화화된다. 그리고 비판자들은 만약 모든 사람이 정부의 존재 목적에 동의해야 한다면 그들이 썩 많은 것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무정부 상태로 고착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대 정부들은 초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자기들에게 기꺼이 부여했던 범위와 권력을 한참 넘어선다. 심지어 오늘날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정부들이 밀의 무해 규칙을 유지하는 것과 국민

들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을 넘어서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종종 받아들인다. 밀턴 프리드먼이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부(負)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를 옹호했고 가난한 가족들에게 교육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할 생각으로 국가가 재정 조달하는 *교육 바우처* (education vouchers)를 옹호했다는 것은 유명하다.

에덤 스미스 자신도, 방위와 사법 제도를 통해 대중을 보호하는 것에 덧붙여서, 정부가 다리와 항구 같은 공공사업을 제공해야 하고 공교육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최상일 유용한 일들이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은 어디에 경계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언제 실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거나 위협되고 있는지 혹은 개입의 정확한 편익들이 무엇일지를 결정하는 것이 종종 어렵다는 사실은 그것을 돕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밀은, 비록 자유 언론의 옹호자이지만, 자기의 무해 원칙이 검열을 정당화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의무들—법정에서 증언하는 것과 자기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학교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것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거래, 근로 시간, 임금 그리고 작업장 수당의 규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인정했다. 그는 신체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제공할 사회 복지 법률들을 옹호했다. 그는 정부들이 도로와 위생 같은 하부 구조를 창설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 그리고 그는 과학적 연구와 예술의 공공 보조를 요구했다. 심지어 크기가 작은 공공 편익들도 그러한 개입들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많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에 의견이 갈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최근에, 그리고 심지어 과도한 국가 권력에 관한 책(《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조차도, F. A. 하이에크도 역시 정부들이 떠맡는 것이 정당할지 모른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몇몇 기능들을 열거했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건강과 일할 능력을 보존하기에 충분한 최저한의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보험을 들기 어려운 불운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 보험 제도, 다시 말하지만 개인들이 대비할 수 없는 자연 재해 후에 원조하는 것, 그리고 경기 순환들과 그것들이 야기하는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포함했다.

많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양보들이 지금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중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이에크 자신이 불평했듯이, ‘비상사태는 항상 개인의 자유의 안전장치가 침식되는 구실이었다’—그리고 우리가 국가에게 긴급 구호, 음식, 주거, 의복, 교육 그리고 보건 의료를 제공하게 할 때, 소수의 사람들에게 필수품으로 간주되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로 간주되는 것 사이에 경계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바꿔 말하면, 그러한 정부 개입에 명백한 *한계*가 없다.

에덤 스미스는 자신의 개입들—다리, 항구 그리고 교육 지원—이 인간들에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로 협동하게 하는 그

저 하부 구조일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자유를 위협하기보다 자유를 증진한다(promote)는 것이다. 하이에크도 역시 자기의 개입들을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 유지하려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시, 그의 생각은 오직 자유로운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함께 협동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것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 활동도, 아무리 가치 있건, 국민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에 대한 어떤 공격—특히, 국가 활동들의 대금을 치르기 위해 조세의 형태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필요로 한다. 몇몇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재산이란 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여긴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공공 편익이—그것이 어떻게 정의되건—개인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보장을 원할 뿐이다.

현실 세계 위험은 ‘목표 점변(mission creep · 당초의 목표가 서서히 예상외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가는 것)’이다—정부들은 명백히 집합적인 책임인 몇 가지 일들로 시작해서, 그 다음 명백한 중점이 없이 자기들의 권력들과 기능들을 확대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경계선을 긋는 데 더 적임일 터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제한된 정부의 필요와 급격히 성장하는 정부 권력의 위험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정부가 긴급 구호와 같은 약간의 것들이 제공되도록(are provided) 확보하는 데 역할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왜 정부가 스스로 그것

들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또한, 비록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지 몰라도, 왜 정부가 심판관(umpire)으로 남아 있어야지 시장 경기자(player)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집단들에 대한 정부 주도 원조가 왜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소득 재분배로 확대되어서는 안 되는지 이해하기도 한다.

사회적 정의의 미신

대조적으로 ‘뉴 리버럴들(new liberals)’은 소득 재분배란 바로 정부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불평등과 빈곤을, 고용주들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고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평등한 권력과 불공평한 재산 법률들의 결과로 본다. 그러므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증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권력 불균형을 고쳐야 하고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못 사는 사람들로 부와 소득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정의(justice)’라는 단어의 큰 오용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정의란 교환적 정의(commutative justice), 즉 개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개인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개인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협과 폭력을 억제하는 것과 강제로 상태가 더 나빠지는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기대하는, 그리고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의는 전적으로 사람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집중한다. 강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감기에 걸리는 것은 *불운(misfortune)*이지만 그것은 *부당하지(unjust)* 않은데, 왜냐하면 아무도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적 혹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아주 다르다. 그것은 한 집단의 상이한 구성원들 사이의 사물들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그 분배를—대체로 더 큰 평등 쪽으로—변경하려고 하는데, 설사 기존 분배가 그저 사회적 사건들의 결과일 뿐이고 아무도 나쁘게 행동했다거나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예를 들어, 만약 100,000명의 사람들 각각이 스타디움에서 어느 대중 가수를 구경하기 위해 지불한다면, 그들은 그날 저녁 약간 더 가난해지고 그 가수는 그날 저녁 현저하게 더 부유해지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강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의 분배가 과연 어떻게 *부당할(unjust)*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물들을 평등으로 되돌리는 데는—가수의 새로운 부를 청중에게 되돌리기 위해 그것을 강제력으로 빼앗는—*강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참으로, 노직이 말하듯이, 미래에 걸쳐 그 평등을 유지하는 데는 *끊임없고 반복되는 강제(constant and repeated coercion)*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문제들도 있다. 완전한 소득 평등은 불가능하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혹은 도대체 일하려고 애써야 할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다면? 그래서

‘사회적 정의’는 필요(need)에 따른, 혹은 사람들이 사회에 전달하는 가치(value)에 비례한, 재분배에 더 집중한다. 그러나 누가 곤궁에 처해 있고 누구의 가치가 가장 큰지 누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가? 순전히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집과 점포가 태풍에서 파괴되는 어떤 사람보다 덜 딱한가? 간호사는 바이올리니스트보다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가? 판단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 결정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의적인 판단들 뒤에서 ‘사회적 정의’의 옹호자들은 사람들의 재산과 자유를 빼앗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거나 가난한지에 따라 상이한 금액의 조세를 납부하거나 상이한 금액의 국가 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법의 지배—법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당국의 자의적인 재정(裁定)에 의해 도움을 받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부나 소득의 어떠한 포괄적인 재분배도 거부한다. 그들은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어떤 일시적인 긴급 구호를 옹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든지 장기 복지 지원에 대한 권리(right)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한다—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강제되어, 그들을 지원할 의무(obligation)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록 그들이 자기 동포들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책임을 같이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점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에서 고되게 살아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 사회들은 더 부유한 사회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것이 빈곤한 국가에서 가난한 것보다 더 낫다. 부유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또한 자선적 기부와 박애 사업을 통해 더 많이 기부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비록 그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도덕적 의무를 후원할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공공 선택과 사적 이익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경우건 재분배와 같은 문제들에 관한 정치적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아주 의심한다. 그들의 의심들은 공공선택학과(Public Choice School)의 연구에 의해 보강되었는데, 이것은 경제학적 개념들을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용했고 그 과정이 심각하게 표준에 미달하는 것을 발견했다.

주류 ‘후생 경제학자들(welfare economists)’은 오랫동안 시장 실패(market failure)와 그것을 고칠 정부 행동의 필요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잊었던 것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도 또한 있다는 것이었다. 정치가들과 관리들은 천사가 아니다. 자기 이익이 민간 시장에 있는 만큼 많이 민주주의 체제에도 있다.

예를 들어, 선거들은 경쟁하는 이익들의 전투인데, 여기서는 무엇이 행해져야 할지 다수파가 결정한다. 그것은—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관한 오래된 농담과 같이—소수파에 큰 위협이다. 그것은 선거들이 로비 집단들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에 의해 악화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고도로 집중된 이익을 위한 선거 편익을 얻기 위해 맹렬하게 선거 운동한다. 종종 이익 집단들은 자기들의 선거 영향력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해 서로 지원하는 연합을 창설하곤 한다. 그러는 동안 정치가들은 그들의 표들을 얻기 위해 기득 이익들의 이러한 연합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결국, 심지어 가장 공공 정신이 투철한 정치가도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선출되어야 한다. 물론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말 없는 다수파(silent majority)’—그 이익들이 훨씬 더 분산되어 있는 일반 대중—이다.

입법부에서의 결정들이 더 예쁘지도 않다. 자기들 자신의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자기 동료들을 ‘당신이 나의 법안에 찬성 투표하면 내가 당신 법안에 찬성 투표하겠다,’는 회전(會戰)들에 끌어들인다. 그래서 누구든 정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법률들이 통과되고, 대변되지 않는 일반 대중은 더욱더 착취된다. 그리고 이런 법률들이 집행될 때, 다시 관료제가—아마도 자기 자신의 제국을 확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들의 규모와 복잡성을 증가시킬—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자이지만 *회의적 민주주의자*

(sceptical democrats)이다. 그들은 집합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약간의 최소한의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그런 기능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넓은 결정들을 어떤 강력한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내려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대의 정부가 아마도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집행할 최상의 방식일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적 과정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시장들이 하듯이) 상이한 이익들을 조화시키는(reconciles different interests)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갈등하는 이익들 사이에서 선택하는(choos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오직 한 쪽만이 이길 수 있는 선택—과정이다. 그것은 선거인들의, 대표자들의 그리고 관리들의 자기 이익으로 훔터가 나 있다.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그것은 소수와 집단들이 착취되게 하고 그들의 자유들이 억제되게 하는데, 모두 ‘민주주의(democracy)’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

이런 이유들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일정 규칙들에 의해 구속되어야 하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없는 쟁점들에, 정밀하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의 민주주의는 확실히 지금까지 고안된 최상의 통치 형태인데, 이 점은 많은 사람들(과 우연히 권력을 잡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일들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는 항상 자비로운 힘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결정되

는 일들이 더 많을수록, 개인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이 잠식되는 것이 더 쉬워지고,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수와 집단들이 착취되거나 억압되는 것이 더 쉬워진다.

대조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권리들과 자유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숫자와 다수파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독재 체제와 같지 않고, 그것으로 돌연변이를 하도록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선거 승리는 승리하는 다수파에게 정확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우할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다.

집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오직 집합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결정하는 데로 민주적—정치적—과정을 국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그 과정이 수행되는 방법에 대한 억제 수단과 그러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방법에 대한 억제 수단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기도 할 것이다.

헌법들과 자유

헌법은 그러한 억제 수단들을 설계하고, 그 당시 우연히 다수파이자 집권하는 사람들에 의해 쉽게 유린될 수 없는 힘을 그 억제 수단들에 주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외관상 강력한 자유주의 헌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국가들조차도 정부의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부터 그리고 다수파에 의한

개인 권리들과 자유들의 잠식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만약 일반 대중이 그것들의 중요성에 관한 자신의 이해와 그것들을 보호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잃는다면 헌법적 자유들은 보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헌법적 억제 수단들을 수립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보호하는 최상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준다고 믿는다.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같은 규칙들—예를 들면, 다원제(多院制) 정부, 연방제 그리고 사법 심사—을 통하여 우리는 기득 이익 집단들이 전 의사 결정 과정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 헌법은 정부 권력이 제한되고 분리되는 것만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법률들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서—정치가들과 공무원들 자신들을 포함하여—어떤 특별한 이익 집단들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러한 헌법은 (그것을 제정하는 국민들이 국가에다가 자기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해칠 권한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공표함으로써 또한 국가 권력의 경계를 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이 유용하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계약 · 사상 ·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환기시켜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저히 모든 권리와 자유를 열거할 수 없다. 홉스가 진술하듯이, 우리는 ‘법의

침묵(silence of the law)' 안에서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소수의 것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거하려는 법 제도는 길고, 복잡하고, 흠 있고, 고통스럽게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오직 법에서 공포된 소수의 예외들에만 복종하여 어떤 평화로운 수단들에 의해서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추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수많은 자유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들 대부분은 자유의 일반적인 추정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당성

스위스계 프랑스인 작가이자 정치가인 벤저민 콩스탕(1767-1830)이 언급했듯이, 헌법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어느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을 지배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동의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대중의 동의를 잃으면, 그것은 자신의 전 권한을 잃고, 그것의 강제적 권력은 정당하지 않게 된다.

프랭크 나이트가 우리들에게 상기시켰듯이, 그것은 그 자체 정부를 제한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권력들의 어떠한 광범위한 모음에도 결코 의견을 같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들은 또한 반란의 위협에 의해서도 억제—되고, 로크와 페인에 따르면, 또한 아주

정당하게 그렇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강제력이 전제될 때, 심지어 가장 부당한 정부들조차도 여전히 매우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선거들은 그것들의 결점들에 도 불구하고, 정부들을 제거하는 더욱 평화로운 방법이다. 헌법들과 같이, 그것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안전판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개인들은, 심지어 엄청나게 인기 있는 정부라도, 다른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들에 복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7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 권력을 의심하므로, 그들에게 그렇다면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 정당하다. 사실 상, 그들은 사회가 중앙 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관한 일관성 있는 설명—*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생적 질서들

*자생적 질서*는 오래된 개념이다. 그것은 확실히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1689-1755)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일반적으로 이로운 사회적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학자 애덤 퍼거슨(1723-1816)은 사회적 제도들을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 계획의 결과가 아닌(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 것으로 이야기했다—이것은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서 묘사한 개념이다.

더욱 최근에, 하이에크는 그 개념을 업데이트하였다. 그는 우리가 세계를 *자연적인(natural)* 것과 *인위적인(artificial)* 것으로 나누

고—자연적인 것은 길들지 않고 불합리하며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무질서한 것으로, 그리고 인위적인 것은 계획되어 있고 합리적이며 구조화되어 있고 질서 있는 것으로 상상하며—그저 후자가 더 선호된다고 추정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질서 있지만 계획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사물들의 또 하나의 범주가 있다고 하이에크는 말한다. 예들은 이동하는 거위들의 V-대형이나 벌들이나 흰개미들의 복잡한 사회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들은 관련 동물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개체 행동의 질서 있는 결과이다.

그러한 자생적 질서들은 인간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언어(language)가 있다. 우리의 복잡한 언어와 문법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계획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자랐을 뿐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범유럽 언어가 되도록 고의로 계획된 에스페란토어가 결코 유행되지 않은 반면, 다른 자생적인 유럽 언어들이 아직도 번창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비슷하게 관습법(common law)도, 나폴레옹 법전이 창조된 것처럼, 결코 의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수천의 개별 사건 판결들에서 생겼을 뿐이다. 시장(markets), 가격(prices) 그리고 화폐(money)도 역시 누군가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발명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발전되었다.

결론은 사회적 질서들이 기능적, 효율적 혹은 심지어 합리적이기 위해 정부나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사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존중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상호 작용을 통해 생긴다. 참으로, 정부 개입은 그런 질서를 더욱더 혼란으로 바꿀 것 같다.

자생적 질서들의 진화

자생적인 질서들은 *진화한다*(evolve). 언어, 관습법, 도덕, 관습 그리고 시장은 모두 변하고 그 때의 필요에 적응한다. 그러한 질서들은 자기 조직적(self-organizing)이고 일반적으로 자기 규제적(self-regulating)이다—그것들을 잘 작동하게 유지하는 데 광범위한 규칙들이 소수 필요하지만, 아무도 그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이 항상 완전하게 적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잘 적응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잘 생존하고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의 진화적 진보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견해들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을 때가 오직 당국의 견해들만 지배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예를 들어, 모두 자기들의 상이한 열차들과 상이한 출입구들 사이를 급히 걷는 분주한 철도역에서의 균형을 고찰해 보자. 하여간, 모든 사람은 서로 부딪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것은 그들 각자가 자기 길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여 자기 방향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열차와 출입구 사이 그들의 종국적인 노선은 전혀 직선이 아닐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들은 거기에 빠르게 그리고 사고 없이 도달한다. 그 대안—그 수천 명의 목적지를

물은 다음에 역을 관통하는 그들의 가장 효율적인 노선들을 도면에 그림으로써 그들을 지시하는 것—은 관리 악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그 문제는 아주 자생적으로, 스스로 해결된다.

규칙들과 질서

위에서 서술된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역(驛)의 사례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묘하게 암시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암시들에도 적응함으로써 충돌을 피하려고 하면서—다른 사람들에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동 규칙성들 혹은 ‘행위 규칙들(rules of conduct)’은 자생적인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 대조적으로, 만약 우리 모두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저 혼란과 갈등만 야기할 것이다.

현실 세계 자생적 질서들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은 기록되지 않을지 모르고 매우 복잡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벌들은 성문 혹은 명령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단지 각 개체의 구조화된 노동들만을 통해서 50,000 이상의 번창하는 군락을 유지한다.

인간 질서들에 관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기반을 두고 있는 문법 규칙들이,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매일 생각 없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서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학생들이 증언할 것이다. 정의의 규칙이나 공정한 경기나 도덕도 마찬가지다. 비록 우리가 그 규칙들이 무엇인지 항상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언제 그 규칙들이 위반되었는지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이와 같이 질서를 촉진하는 규칙들은 그것들이 유용하고 적응적이기 때문에 진화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진화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행동들에 자발적인 한계를 부과하고, 그것들을 더욱 예측 가능하게 하며, 그래서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 재산권, 전통, 관습, 도덕, 정직, 존중 그리고 습관과 같은 규칙들은 개인의 자유의 불을 담는 불 바구니 (fire basket)이다. 아무도 그것들을 *발명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순조로운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동하는 방법에 관한 무의식적인 ‘지혜(wisdom)’를 담고 있다.

정의와 법치[법의 지배]

그렇다면 자생적 질서는 예측 가능한 개인의 행동에 달려 있고 그것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질서의 기초는 *정의의 규칙들(rules of justice)*이라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말한다.

문법처럼 정의의 규칙들은 의식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그것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진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널리 따르는데, 비록 우리가 그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항상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것들을 법전으로 편찬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의의 규칙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법률들(laws)’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것들은 정당한 법들이 아닐지 모른다. 예를 들면 그것들은 *소급하거나(retrospective)*(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동들로 처벌하거나), *실행 불가능하거나(infeasible)*(순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incomprehensible)*(모순적이거나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거나), *불공정하게 집행될지(unfairly enforced)* 모른다—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 더불어 성장한 정의의 개념을 위반하든지, 약간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곤 하듯이, *자연법(natural law)*을 위반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편들의 법률은 ‘법(law)’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없다.

법의 지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오직 *일반적이고(general)*(당황케 할 만큼 많은 예외들이 없고), *보편적이고(universal)*(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안정적인(stable)*(아주 자주 바뀌어서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일이 없는) 규칙들을 따름으로써만이 자생적이고, 협동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비폭력적이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질서가 생긴다고 믿는다.

우리 대부분이, 사회생활의 규칙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법 규칙들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들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규칙들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들에게서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의 행동들을

더욱 예측 가능하게 하며, 우리가 더 자신 있게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규칙들도 마찬가지다—그것들로 인해 특별한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편애되거나 착취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추가적인 결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국자들의 자의적인 지배와 대비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치가, 경찰, 법원 그리고 기타 관리들이 자기들의 강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그것이 막는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인 체포, 재판 없는 투옥, 이중 위협(동일한 범죄에 대해 여러 번 재판 받는 것), 불공정한 재판, 편향된 법관, 부정 선거 그리고 부당한 입법과 같은 많은 일반적인 해악들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

법의 지배를 보호하기

비록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제한된* 정부를 믿을지라도, 그들은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 *작은* 과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선거들과 임명들이 공개적이고 공정할 것, 법관들이 독립성을 유지할 것, 그리고 법률들의 일반성과 보편성이 자세히 조사될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들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사법 제도에 자원들을 보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법원 관료제가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사건들이 재판에 도달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린다면, 혹은 만약 경찰과 법관의 보수가 아주 낮아서 그들이 대신 뇌물을 받는 것에 의존한다면, 정의는 만족되지 않는다.

헌법(constitutions)은 이 자연적 정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헌법은 법 제도의 적법 절차(duel process)를 소중히 하여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입법과 관계(官界)가 결코 침입할 수 없는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을 규정할 수 있다. 관습법(common law) 전통도 자유의 또 하나의 보루이다. 개개 사건들은 발표되고 법정에서 검토되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정의의 규칙들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관한 이해(理解)를 키운다. 세 번째 보호는 자유 언론(free speech)이다. 만약 사람들이 입법과 법 집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면, 입법하는 데 더 많은 생각이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은 부당한 입법과 부당한 법적 소송 절차들에 능동적으로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들

이것은 모두 오늘날의 많은 입법자들의 시각에서 아주 멀다. 그들은 법원들이 선출된 다수파를 따르기를 바라는데, 자기들이 법관들보다 공공 관심사와 더 접촉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현재 상황을 수십 년이나 수세기 전의 헌법 필자보다 더 잘 이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적 제한을 무시한다. 그들은 권리들을 천부적이고 불가침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입법부에 의해 우리에게 허여된 특권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은 법률이 심지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고서라도 ‘공공선(public good)’을 증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거의 어떤 법률도 아무리 부당하고 강제적이더라도—불

가피하게 입법자들 자신들에 의해 규정되는—‘공공선’을 구실로 변명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법원들이, [공공 관심사와] 멀어지기는커녕, 입법자들의 단기주의(short-termism)와 기득 이익을 견제하고 부당한 법률을 무효로 하며 정당한 법률들이, 심지어 집권자들에 의해서도,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개인 권리와 자유들의 결정적인 보호자라고 본다.

논쟁들이 법정에서 논해지는 것을 통해서 성장한 관습법이 정치가들에 의해 통과된 법률들보다 정의의 더 나은 보증이라고 하이에크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그리고 대부분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동의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법의 지배는 법적 규칙들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재 사항에 부합하는 반면, 정치가들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들은 너무나 자주 특정 집단들을 편애하기(혹은 차별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다—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그러한 입법에 아주 회의적인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자연적 질서의 합리성

비록 많은 사람들이 중앙 지휘가 없는 사회가 거칠고 불합리함에 틀림없다고 상상할지 몰라도,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생적 질서들이 실제로 더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그것들은 중앙 집중적 사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나은 의사 결정,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더 신속한 적응, 그리고 더 빠른 진보를

초래한다. (실례로, 덜 중앙 집중적인 자기의 서구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지휘되던 구 소비에트 블록의 경제적 후진성을 상기해 보라.)

이러한 방향의 사고를 상세히 알고 있었던 F. A. 하이에크에 따르면, 그 이유는 사회적 진보가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이 *분산된 지식(dispersed knowledge)*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국지적, 개인적, 단편적, 부분적이고, 중앙 집중화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상황을 중앙 당국이 늘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전문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특정 시장에 관해서와 자기들의 고객들의 필요와 가치에 관해서 더욱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리하는 많은 변화하는 시장 정보는 심지어 그것이 어떤 중앙 계획 기관에 전달될 수 있기 전에 구식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버(Über)와 같은 앱과 현대 슈퍼컴퓨터가 어떤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도 변화하는 택시 수요 및 택시 이용 가능성 같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자료를 정말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정보가 효율적으로 수집되고 사용될 수 있는 규모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용도들 사이에서 변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전제될 때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발견하는 데는 경쟁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보는 프로세스 체인(process chain)에서 상이한 사람들—우버나 택시 회사, 기사들 그리고 고객들—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사용된다. 중앙 계획은 이것을 전

혀 복제할 수 없다.

하여간, 문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자료는 확실히 중앙 당국에 의해 조금도 *더 낮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정부 당국도 (가족 비상사태, 날씨 혹은 대중 운송 지연과 같은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택시 승객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 날씨, 일시적인 도로 폐쇄와 우회로, 큰 군중을 끌어들이는 지방 이벤트,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셀 수 없이 많은 기타 요소들과 같은 것들에 관해 택시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심층적 지식을 중앙 계획가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의 공급자들은 중앙 계획가들보다 지방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훨씬 더 절박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의 동기는 진보를 추진한다. 수천의 공급자들이 모두 일을 잡으려고 겨루는 것이 단일의 중앙 기관에 맡겨지면 그럴 것보다 혁신이 더욱 빠를 것이다. 그리고 혁신이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더 낫다. 만약 그들의 혁신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그저 근소한 지방적 손실만 내면서 포기될 수 있다. 반면에 중앙 계획 기관에 의한 전국적인 혁신은 전 경제에 대한 재난의 위험을 무릅쓴다.

자생적 사회가 계획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어떤 단일의 계획단(團)에 의존하기보다, 각각이 자기 자신의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백만의 개인들의 계획들에 의존한다. 막대한 양의 분산된 개인 지식에 기반을 두는 그러한 사회는 아주 복잡해서 어떠한 중앙 두뇌도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정부 권력을, 특히 사회를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하려는 시도들을, 의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제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계획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

시민 사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생적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원자론적인(atomistic) 사람들이라고 상상하지 않는다(비록 초기 사회 계약 이론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더욱 최근에는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와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 추구적인 경제인(homo economicus)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관념들에서, 이것의 미약한 징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지도 기계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선택으로나 태생으로나, 개인들은 상이한 가족, 도덕, 종교, 문화 그리고 기타 헌신들을 가진 상이하고 중첩된 집단들의 구성원들이다. 그들의 가치들은 이러한 헌신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들의 상호 충실에 의존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야망들을 시민 사회(civil society)의 이러한 제도들—자선 단체, 노동조합, 자조 집단, 선거 운동, 종파 그리고 많은 기타 집단들—을 통해서보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덜 추구한다.

공산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은 시민 사회에 대단히 비판적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 사회가 사람들의 헌신을 국가에서 떼 데로

돌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바로 똑같은 이유로 시민 사회의 사상을 신봉한다. 그들에게는, 시민 사회 덕분에 개인들이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정치 당국에 굴종하지 않고 자기들 자신의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다. 참으로, 상이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야망들을 어떤 다수와 견해에 희생할 필요 없이 서로 양립되지 않는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다. 더군다나, 만약 시민 사회가 강력하다면, 정부들이 추가적인 권력을 떠맡을 구실이 더 없다. 예를 들면, 활발한 자선 부문은 국가 복지 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안심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성장과 잠재적 남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업들이, 멀리 있는 중앙 집권적 당국에 의해 시도되기보다는, 지방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이한 방식들로 착수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몇몇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민 사회가 우리에게 과도한 중앙 집권화의 위험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주의의 위험도 면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환영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1805-59)은 미국의 개인주의가 시민의 미덕과 자제를 질식시키고, 국가 권력의 뒷받침을 받는 대중의 독재의 가능성을 창출한다고 비판했다.

자생적 질서와 자연권

자생적 질서의 사상과 자연권의 사상 사이의 갈등은 언급할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 만약 사회가 자생적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데 고립된 자유인들 사이의 사회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합리적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들이 서로 간의 행동들에 적응하는 전적으로 의도되지 않은 진화적 결과이다.

많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은 자연권 접근법보다도 덜 급진적이고 더 보수적인 사회 문제 접근법을 암시한다. 자연권 시각에 관한 비판들 중 하나는, 자기들의 자연권들을 방심하지 않고 지키는 분리된 사람들이 실제로 의견을 같이할 것이 아마도 거의 없어서 정부에 대해 거의 아무 역할도 남겨 놓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어떤 것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자생적 질서 접근법은—실사 우리의 합의가 무의식적이고 거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우리가 많은 것에 관해 의견을 같이할 수 있고 정말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8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

시장의 자생적 질서

사회적 및 정치적 자유와 나란히,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경제적*(economic) 자유도 옹호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명하고, 창조하고, 저축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경제적 자유가 일반적인 번영을 창출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 자유가 사람들에게 서로 간의 필요에 자발적으로 적응하면서 자기들의 상호 편익을 위해 협동할 수 있게 하기—그 과정에서 가치를 창조하고 보급하면서—때문이다.

이 특별한 자생적 질서를 창출하는 규칙들은 재산, 계약, 정직 그리고 정의의 규칙들이다. 공동으로, 그것들은 이해할 수 없게 크고 복잡한—어떤 의식 있는 기관이 파악할 수 있을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복잡하며, 전 세계를 포괄하는—경제적 질서를 창출한다.

가격의 자생적 ‘기적’

매우 많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들이 아주 놀랄 정도로 순조롭게 조

정되게 하는 것은 하이에크가 가격 제도의 ‘기적(miracle)’이라고 부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발명하지 않았다—그것이 자생적으로 생겼지만, 그것은 가치 창조를 추진하고 인간 공동체의 전체에 걸쳐서 번영을 보급한다.

가격은 그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기꺼이 교환하는 *율(rate)*일 뿐이다. 보통 그것은 화폐로 표현된다—그 이유는 다만 화폐가 다른 것들과 교환될 수 있는 유용한 재화로서 생겼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말로, 화폐는 배고픈 이발사가 이발을 필요로 하는 빵 굽는 사람을 찾아야 할 필요를 면하게—해서 교환을 훨씬 더 쉽고 더 순조롭게—한다.

가격은 *가치(value)*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라. 가치는, 미(美)와 같이, 보는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고, 사람들은 똑같은 것도 다르게 평가한다. 그것은 그들이 거래하는 이유이다. 배고픈 이발사는 빵 굽는 사람이 빵의 대가로 요구하는 화폐액보다 더 크게 빵을 평가하지만, 빵 굽는 사람은 현금을 빵보다 더 크게 평가한다. 단일의 *가격(price)*이 교환되지만, 그들 각각은 물건들을 다르게 *가치하고(value)*, 각각은 자신이 거래로 더 나아졌다고 여긴다.

원거리 통신으로서의 가격

그러나 가격은 희소성(scarcity)을 정말 드러낸다. 더 높은 가격은, 소비자가 더 많이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로, 어디서 물건의 수요가 그것의 공급을 웃돌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은 이용할 수 있는 더 높은 보상을 손에 넣도록 공급자들을 부추겨 그들의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그 수요를 만족시키게 한다. 비슷하게, 떨어지는 가격은 수요가 약하고 공급자들이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은 자원들이 어디서 가장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 나타내고 그것들을 그러한 용법들 쪽으로 끌어들이고 낭비적이고 덜 귀중한 용도들로부터 멀리 한다.

그러한 이로운 조정들은 시장에서 시장으로 퍼진다. 하이에크의 예를 들어, 제조업자들이 주석에 대해 어떤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주석을 수요할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높은 가격은 광업 회사들을 부추겨 더 많은 주석을 생산하게 하고 도매업자들을 부추겨 그것을 공급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기존 주석 사용자들도 이제 덜 비싼 대체품들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그런 대체품들의 가격을 다투어 올릴 것—이고 이것은 그런 대체품들의 사용자들을 재촉하여 다른 대체품들을 찾게 할 것—이다. 전 계열의 조정들이—모두 하이에크가 가격의 ‘거대한 원거리 통신망(vast telecommunications system)’이라고 부른 것 덕분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력과 자원들이 어디서 가장 큰 가치를 발생시킬지 보여주며—몫의 잔물결처럼 퍼져나간다.

명령 없는 시장

시장이 불변의 균형에 머무른다고 암시하는 교과서 ‘균형’ 도형과

다르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결코 한 장소에 정착하지 않는 산골짜기 개울처럼, 동태적 과정(process)으로 본다. ‘경제(the economy)’를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체제(system)로 상상하기보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 현상을 각각 자기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백만의 개개 인간들이 끊임없이 상호 조정하는 계획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result)로 본다.

이 자생적 경제 질서는, 다른 것들과 같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의 예측 가능한 행동 규칙들의 결과다. 그것은 자기 이익과 이윤에 의해 동기화되지만, 경쟁, 계약, 재산권들 그리고 정의와 같은 요소들—시장질서가 이롭게 기능하게 하도록 국가가 유지해야 한다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원리들—에 의해 규제된다.

규칙들과 재산

재산권들은 이러한 이로운 질서의 작동에 근본적이다. 안전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양쪽에 이롭도록—자기 소유의 품목을 그것을 더 크게 평가하는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다. 더욱더 심오하게, 안전한 소유권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데 능한 것을 생산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생산하는 데 능한 것을 대가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화, 즉 분업(division of labour)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마추어 같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경우보다 우리 모두를 더욱더 생산적이게 한다.

또한 안전한 소유권들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낮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도구들과 장비에 투자하여, 자본을 형성(build capital)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이 정치적 다수파에 의한 착취에 저항할 수 있게 한다. 참으로, 그것들은 거들먹거리는 정부들에 용감히 맞설 자원을 사람들에게 준다.

재산 규칙들

재산권들 덕분에 사람들은 재산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말하자면, 그것을 임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소득을 벌 수 있고, 그것을 판매나 증여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권리들은 사법 제도에 의해 집행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소유권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은 강제 없이 획득되어야 한다. 그것은 거래나 증여를 통해 획득될지 모른다. 혹은 아마도, 한 폐기의 황무지와 같이, 다른 누구도 소유하거나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손에 넣음—설사 새로운 소유자가 그것에 대해 유리한 용도를 발견할지 몰라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injures) 않는 과정—으로써 획득될지도 모른다.

재산은 토지, 건물 그리고 동산뿐만 아니다. 그것은 주식과 증권 같은 복합적인 무형재들이나 특허를 받은 디자인과 저작권을 가진 음악과 같은 지적 재산—과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대해 가지는 재산—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정부에 의해 소유될 수 있거나 (예를 들면, 해양 어업과

같이) 소유주가 없을 수도 있다—하기야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민간 소유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정부 소유자들보다 더 잘 관리한다고 그리고 무소유권이, 아무도 자원들을 보존하는 데 소유자의 이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자원들이 과도 이용되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위험을 무릅쓴다고 믿는다.

재산의 규칙들이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것들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문화와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평화롭게 협동할 수 있다. 그것들이 그 이로운 협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들은 진화했다.

사람들이 명백하고 집행 가능한 소유권들을 가질 때, 그들은 더욱 재산 자원을 보존하고 투자할 것 같고, 그것을 생산적인 용도로 유지할 것 같다. 그것은 명백히 소유자에게 이롭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다. 그것은 그 투자의 과실들이 거래되도록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거래는, 그 다음에는, 전문화, 생산성 그리고 가치의 보급을 촉진한다. 약탈하는 도적이거나 군대에 의해 도둑맞거나 파괴될 작물을 농부들이 심거나 길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의 참화를 입거나 무법적인 국가들과 그것을 비교해 보라.

경제적 자유의 옹호 논거들

전통적인 경제적 접근법들과 달리,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모형(model)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가격과 같은 경제 현상은 수백만의 개인들의 복잡한 상호 조정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result)*이다. 그러나 그 점은 그것이 무작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 과정들은 오랜 시행착오 기간들에 걸쳐 축적된 많은 ‘지혜(wisdom)’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적이고 분산된 정보

사실상, 이러한 장치에는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계획된 어떠한 경제에서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계획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경제 질서는 착수할 훨씬 더 많은—그리고 더 *적절한*—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그런 수백만의 개인들은 어떠한 먼 경제 계획 기관이 늘 알 수 있을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국지적 상황에 관해, 자기 자신의 가치에 관해, 그리고 자기의 고객들과 공급자들의 우선순위에 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또한 계획가들은 심지어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다. 그것이 규모가 방대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개인적(personal)*이기도 하다. 기술, 경험, 시장 이해, 고객들의 욕망에 대한 감, 이것들은 경제생활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지식이지만, 중앙 계획가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 우리가 석유를 생산해야 할까 포도주를 생산해야 할까? 그것은 수학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물건들을 생산하는 수고를 떠맡는 유일한 이유는 그

것들을 소비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와 가치—더하거나 뺄 수 없고, 대단히 주관적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생적인 경제 질서는 계획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각자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를 예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원들을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돌리는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서 자기의 분산되고 부분적이며 개인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수백만의 개인들에 의한 *계속적인 계획*(continuous planning)의 결과이다.

경쟁

경제적 자유는 작동하는데, 왜냐하면 강제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자기 이익을 증진하는 유일한 길이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공개 경쟁을 이것의 주요 운전자로 보는데,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고를 공급자들과 제품들에 관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비용-효과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도록 자극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쟁은 ‘완전히(perfectly)’ 동일한 공급자들, 제품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냉혹한 교과서 모형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생산자들이 많은 상이한 선호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들에 매력이 있도록 자기들의 매물들을 차별화하

려고 애쓰는 동태적이고 인간적인 과정(process)이다.

이런 ‘불완전들(imperfections)’은 시장들에 활력을 주고 혁신, 효율 그리고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생산자들을 부추겨서 그 불완전들에 끼어들게 하고 채우는 것은—상승하는 가격으로 드러나는—부족(shortages)과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다. 생산자들에게 생산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잉여(surpluses)이다. 소비자들의 상이한—그리고 심지어 모순적이기도 한—기호들이 만족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물로 나와 있는 재화들의 차이와 다양성이다.

공공 효용

자유 경제는 상이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화시킨다.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은 자유롭게 서로 협동할 수 있는데, 그들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그들이 다르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화폐를 매개로, 우리는 심지어 가치, 종교, 도덕 그리고 세계관이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를지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다양한 견해들을 가진 국민들의 전 세계의 경제적 상호 의존은 인간 역사에서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일 것이다.

개인들에게 동기를 주는 것은 자기 이익일지 모르지만, 재산, 전 문화, 시장들 그리고 교환을 통해, 그 자기 이익은 일반 편익을 위해 이용된다. 물건들은 더욱 비용-효과적으로 생산된다. 소비자들은

품질에의 상향 압력과 가격에의 하향 압력에 의해 잘 대접받는다. 새로운 재산이 창조되고 가치가 증가된다. 욕망이 채워진다. 선택이 확대된다. 인간 다양성과 개성이 찬양된다.

그리고 설사 개인들이 자선에 의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바로 그 체제를 보존하는 데 바로 그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자기들이 창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의 불안정화 효과들

경제적 자유는 우리에게 중요한데, 단지 경제 활동이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들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사회적 및 정치적 자유들에도 기본적인데, 예를 들면, 만약 권력자들이 신문, TV, 라디오 그리고 온라인 매체를 통제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손상된다. 만약 정치 당국이 모든 집회장들을 소유한다면 자유로운 결사는 위협받을 것이다. 만약 국가가 우리의 사무실들과 공장들을 관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동의 과실들을 향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과도한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보루로 본다.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정부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작았다. 지금,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을 유지하는 데 높은 세금이 필요한 대규모 정부 조직들을 가지고 있

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재산권들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 근소한 세금은 국방과 사법 같은 필수적인 정부 기능들을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할지 모른다. 그러나 높은 세금은 근로와 저축을 억제하고, 시장들의 창조적 활력을 꺾으며, 자원들을 높게 평가되는 용도들로부터 (종종 대표적이지 않은) 정치 당국에 의해 선택된 용도들로 돌린다.

시장들을—예를 들면, 공개경쟁을 유지하고 착취를 억지해서—자유롭게 하기 위해 규제도 또한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시, 상업 협정들을 억제함으로써, 규제는 자발적 교환으로부터 창조되는 가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많은 규제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정치적 및 기득 이익들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출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생활에 대한 정부 개입이 보통 파멸적이라고 결론짓는다. 과세가 인기가 없으므로, 정부들은 차입한다—다음 세대로부터, 그들의 동의 없이, 돈을 빼앗는다. 자기들의 빚을 평가 절하된 화폐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들은 자기들의 통화의 가치가 잠식되게 한다. 그러나 그 *인플레이션(inflation)*은 가격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상대 가격 변화의 신호를 일반 물가 상승의 잡음 가운데 빠뜨리며, 자기들의 노력과 자원들을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을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정부들은 경제적 호황을 자극할 것을 기대하여 화폐와 이자율들을 조작하도록—변함없이 불황, 실업 그리고 경기 후퇴로 끝나는 시장 현실들의 무시—자주 유혹받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개입들을 금하는 것을 대단히 선호할 것이다.

국가 없는 보건, 교육 및 복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또한—선진국들에서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보건, 교육 그리고 복지와 같은 서비스들에 대한 정부 간여에 관해서도 회의적이다.

예를 들면, 복지는 빈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보조를 받는) 실업과 (과세되는) 고용 사이의 균형을 역(逆)으로 기울여, 아마도 반대로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적인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국가에 의한 적어도 약간의 최저 복지 제공을 옹호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지원이 시장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가장 잘 제공된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그들은 사람들이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에 대비해 보험에 들고—국가의 후퇴에 의해 다시 활력을 얻는—자선 단체들이 곤궁의 사례들에 도움이 되거나 보험을 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불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훨씬 덜 낭비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국가 급부금 제도들보다도 긍정적 유인들을 더 많이 그리고 잘 못된 유인들을 더 적게 창출할 것인데, 국가 급부금 제도들은 (수혜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그 제도들을 관리하는 국가 관료들 사이에서도) 종종 의존을 조장한다.

보건도 또한 종종 정부에 의해 제공되거나 대단히 규제되어, 사람들이 보험업자나 제공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한다. 경쟁이 다른 시장들에서 잘 작동하므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왜 그것이 병원들에서도 또한 작동해서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여서는—현재 보건

의료가 감당 불가능하거나 접근 불가능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가장 큰 편익을 얻을 것이다—안 되는지 묻는다. 그리고 진정으로 경쟁적인 보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국가를 괴롭힐 필요가 전혀 없이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양식의 잠재적 비용을 알게 될 것이다.

교육은 종종 대체 제공자들—과 참으로 대안적인 생각들—을 구축(驅逐)하는 또 하나의 국가 독점인데, 이것은 자유 사회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그저 해로울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학교 교육의 경쟁을 옹호하는데, 이것은 다시 ‘비행 소년’이 많은 황폐화한(sink) 학교들의 함정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도울 것이다. 밀과 같은 약간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기초 교육이 여전히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데, 하기야 다른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자기 아이들을 위한 부모들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다시 자선 단체들이 곤궁의 사례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긴 한다.

무역과 보호무역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무역이 국내 상업과 꼭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국가들에게 자기들이 잘 하는 것에 전문화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전 세계로부터 온 재화들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역사적으로, 홍콩과 같이 무역을 개방했던 국가들은 아주 빨리 성장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과 인도 같은 국가들이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수십억 사람들이 비참한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국제 무역은 국제적 협동, 관용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퍼뜨린다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렇지만 정치에 의해 움직여서,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수입 할당과 관세로 자기들 자신의 생산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것은 잠재적 수입자들에게 자기들 자신의 노동의 과실들로부터 편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들의 더 적은 선택, 더 적은 전문화, 덜 효율적인 자원 사용, 그리고 가치의 상실을 초래한다. 그것은 또한 틱-포-택(tit-for-tat · 맞대응) 보복, 무역 전쟁 그리고 국제적 긴장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들이 너무 쉽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침해한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일어난다.

9 오늘날의 고전적 자유주의

쇠퇴와 부활

고전적 자유주의의 쇠퇴

고전적 자유주의는 17세기와 18세기에 번창했다. 그리고 19세기의 위대한 자유 무역과 경제 성장의 시대는 그것에 신세를 많이 졌다. 그러나 19세기 후기까지는 다른 사상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유의 산물들 중 하나인 산업화는 사회적 문제들—가족 대변동, 도회지로의 빠른 이동, 그리고 사람들이 더 가깝게 같이 살고 있음으로 인한 불평등의 더 큰 인식—을 초래했다.

20세기까지는, 산업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앙 집중화 이데올로기와 동행하는 군국주의로 완비된, 국가 사회주의를 위한 모병장(recruiting ground)이 되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던 싸움 후에 중앙 집중주의를 거부하기보다는, 전후 승리자들은 그것이 ‘전쟁에 이겼던(won the war)’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기들 자신의 중앙 집중적 명령 구조들이 자기들이 ‘평화에 이기는(win the peace)’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때까지는 우리의 경제적 이해에 더 큰 자신감도 있었다.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이 고용과 산출물을 통제할 지식과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중앙 계획이 시장의 ‘불합리(irrationality)’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수월하게 더 우월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

합의의 파탄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매우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이러한 시각이 불신되게 된 것은 오래지 않았다. 여행과 통신의 증진은 공산주의 블록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결함들을 폭로하였다. 서독은 1948년 어느 일요일 아침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태운 ‘통제의 모닥불(bonfire of controls)’ 후에 무척 경기가 좋아졌다—반면 악명 높은 베를린 장벽의 다른 쪽에 있는 동독은 계속해서 더 냉혹하게 되었다. 일단 반도가 자유로운 구획과 공산주의 구획으로 분단되자, 똑같은 일이 두 코리아에서 일어났다. 더욱 교육받고 견식 있는 세계 주민은 군국주의를 자신의 보호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증대하는 경제적 상호 의존에 대한 위협으로서 보게 되었다.

전후 경제 정책도 역시 뼈격거리고 있었다. 불황의 시기를 위해 계획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의 팽창주의 정책들은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을 싹트기 시작하는 정부 팽창과 맹렬한 인플레이션—케인스학과 학자들에게는 불가해하게도, 실업과 불황(stagnation)을 동반하며—으로 전환시켰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재탄생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은 결코 불가해한 것이 아니었다. 하이에크가 설명하곤 하듯이, 그것은 우리가 사회 및 경제 생활의 자생적 질서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을 드러냈다.

비록 지적 광야로 쫓겨났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현황을 점검하고 자기들의 견해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들이 현대 시대에 현실 적합성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다시 모였다. 반격은 1947년 4월에 시작되었는데, 그 때 하이에크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가 될 것의 첫 회합에서 소규모 집단의 유럽 및 미국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제네바 호수 위 산맥에 모았다. 그것의 회원들은 많은 다른 것들의 원천이 될 경제 문제 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싱크탱크들을 계속 설립한다.

하이에크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회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 부활에 대한 기여로 노벨상을 수상한다. 예를 들면, 수상자 조지 스티글러(1911-91), 밀턴 프리드먼(1912-2006) 그리고 게리 베커(1930-2014)는 건전한 화폐, 제한된 정부 그리고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시카고학과 경제학의 지도적 인물들이 된다. 한편 그들의 동료 수상자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은 정부 의사 결정의 합리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공공선택학과 공격을 이끈다. 20세기 말까지는, 그들의 사상들은 세계의 지도적인 정부들을 움직이고 있

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의미

그러나 오늘날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하지 못한 한 가지는 자신들에 대해 좋은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고전적(classical)’이라는 수식어는 로크와 스미스의 시대를 상기시키는데, 그들의 견해들에 많은 지혜가 있었지만, 세상은 변했고, 오늘날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현재의 상황들과 논점들을 다루기 위해 자기들의 사고를 새로운 방식들로 발전시켰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자유주의적(liberal)’이라는 알기 쉬운 용어는 시민권들과 정치적 자유를 주창하지만 경제적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의심하며 정부가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고 평등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 포획되었다(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러한데, 하기야 그 혼란이 거기서 퍼져 나가는 한다). ‘뉴 리버럴(new liberal)’과 ‘현대 리버럴(modern liberal)’이라는 용어들도 역시 횡령되었다.

‘네오-리버럴(neo-liberal · 신자유주의)’이라는 말은, 만약 그것이 오늘날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그저 욕설만 되지 않았더라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 말은 서독의 전후 ‘사회적 시장 경제(social market economy)’의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 주창자들 사이에서 생겼다. 그러나 더욱 최근에는 그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 양심

이나 사고도 없고, 모든 기업 행동을 옹호하며,—만약 있다면—자유방임 및 야경꾼 국가를 요구하는 외곺수의 경제적 광신자로 여겨지는 풍자만화를 창작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한 허수아비는 공격하기 매우 쉽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이 모든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실제로 믿는 것이 전혀 아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스펙트럼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정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질문들에 대한 접근법들의 스펙트럼이다. 한 쪽 끝 너머에는 무정부주의자들(과 약간의 리버테리언들)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 제도들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쪽 끝 너머에는 보수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가 기본적인 권리들을 지키는 데뿐만 아니라 일정 도덕적 혹은 정치적 가치들을 보존하는 데도 강력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리버테리언들보다 문화, 대의 정부, 그리고 자생적인 경제 및 사회 질서를 보강하는 규칙들을 더욱 강조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보수주의자들보다 사회적 효용을 위해 자유를 덜 기꺼이 희생하는데, 설사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효용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다시, 상이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상이한 핵심 원리들에 따라 움직인다. 프리드먼과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중

요하지만, 자유의 결과들도 실제로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탈규제, 민영화 그리고 더 낮은 세금을 지지하는데, 그것들이 자유를 제고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낳는 이로운 사회적 결과들 때문이기도 하다. 하이에크 같은 다른 사람들은 일정 도덕적 및 법적 규칙들에 의해 제한되는 자유행동을 자생적 질서의 본질적인 토대로 본다. 그렇지만 노직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인간들 모두가, 불의를 교정하는 데서가 아니면, 국가에게 거의 어떠한 정당한 역할도 남겨두지 않는 변경 불가능한 자연권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다양한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인 원리들에 정말 의견을 같이한다. 그들은 국가의 주요 목적이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우리의 행복 추구에 대한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하는(safeguard our rights)*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므로, 국가는 그렇게 작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비해 우리의 자유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것은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발적인 교환(voluntary exchange)*이 가치를 더하고 보급하는 데, 우리의 창조적 정신을 해방하는 데 그리고 우리의 다양성과 자기표현을 세상에 알리는 데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정치, 경제 혹은 사회생활에서 *절대주의에 대한 반감(antipathy to absolutism)*을 가지고 있지만, 자생적인 사회 및 경제 질서들의 순조로운 작동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도덕적 및 법적 규칙들을 정말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개인들이

자기들의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지어(take responsibility)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종종 도우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요구할 권리(right)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평등한 도덕적 지위(equal moral status)와 법 앞의 평등한 대우(equal treatment under the law)를 부여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국제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신념에서 국제주의적이고, 인류 전체가 기본적인 권리들과 자유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 정부나 심지어 세계 시민 사회에 관한 어떠한 유토피아 사상도 키우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국민 국가에 대단히 애착심을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그들을 교육하고 그런 국가들 사이의 충돌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것은—아이디어, 기회, 선택 그리고 자유를 동시에 보급하여—국제적 여행과 경제적 상호 의존이 크게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국가 안에서든 적용되는 자유의 원칙들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무역, 자본 그리고 이민의 자유와 외국인들이나 그들의 재화, 서비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차별 금지 같은 원칙들에 국제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자 빌헬름 뢰프케(1899-1966)가 말하듯이, 국제주의는

본국에서 시작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국민 국가 안에서 정당한 법률들, 자유들 그리고 법의 지배를 유지한다면, 그 때는 동일한 원칙들이 우리의 국제적 거래 관계와 제도들을 특징지을 적어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위해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국들이 종종 사람들의 사고를 억누르기는 해도, 제국들은 조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들, 가족들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듯이 문화들과 국가들 사이에서 다양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반자유주의적인 집단의 취급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 흥미로운 문제 하나는 그들이 대단히 *반자유주의적인(illiberal)* 집단과 국가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어떤 관념도 거부하고 만약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자유들을 기꺼이 소멸시킬 종교적 및 정치적 근본주의자들이 항상 있었다. 그러나 지금 여행이 아주 쉽고 파괴적인 기술들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협은 더욱 위험해졌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개입보다 관용을 더 지지했는데, 그들은 개입을 사람들의 자결권들과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다른 집단들이나 국가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자유와 관용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면, 질문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불관용을 얼마나 많이 관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9세기에 글을 쓴 밀은, 우리가 ‘야만(barbarian)’ 국가들에 개입할 온갖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문명(civilized)’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오직 ‘문명’ 국가들만이 우리와 도덕적으로 동등하고 하여간 ‘문명’ 국가들의 문제들에 개입해도 그들이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훨씬 더 최근에, 존 롤스도 우리가 ‘도의적인(decent)’ 국가들을 관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무법(outlaw)’ 국가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슷한 주장을 했다.

전형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 일련의 시각들을 유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결, 반자유주의적 공격에 대비한 자유 사회의 강건함,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무의미한 비용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어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전략은 한 집단이나 국가가 언제 진정으로 반자유주의적이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위협인지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을 연다. 예를 들면, 중국은 정치적 자유가 전혀 없고 사회적 자유도 별로 없지만 상당한 크기의 경제적 자유가 있다. 한편 그것의 경제적 및 군사적 권력은 많은 국가들을 기겁하게 한다. 그 점은 그 나라를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되게 하는가?

본국에서의 반자유주의

본국에서 반자유주의 집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질문에도 비슷한 쟁점들이 발생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특정 종교적 혹은 정치적 집단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개입이 자기들 자신의 핵심 원칙들과 어긋나며 다른 사람들의 자율과 자기표현을 저해한다는 점을 걱정한다. 그들은 대개 종교적 및 정치적 집단을 관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기야 (예를 들면, 독일에서 국가 사회주의의 고조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할지 모른다.

반면에, 많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예를 들어, 소녀들이 교육을 거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여성 성기 훼손(genital mutilation)과 강제 결혼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인간들이 누리는 권리들과 자유들의 침해로 간주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관례의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국가 행동이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다른 예절과 관습을 관용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서 개입을 해야 할 어떤 압도적인 ‘공공의(public)’ 논거가 있지 않으면 개입이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한다. 다른 사람들은 설득과 토론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여성 성기 훼손을 막는 법률도 그것을 겪은 여

성들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아이들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보다 이 관행을 종식시키는 데 아마도 덜 효과적인 것이다. 법률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자유다.

다시 한 번, 만약 반자유주의 집단들이 옥일승천의 기세에 처해 있고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을 사람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빼앗는 데 사용한다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할까? 페인과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봉기해서 그러한 정부를 타도하기에 충분한 변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무척 곤란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비전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세계에 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다. 그들의 세계는 순수 원리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고, 간단히 방정식들에 의해 관리될 수도 없다. 사건들은 보통 종종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결코 자비롭다고 할 수 없는 인간들의 행동들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이지 반드시 의도들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최선의 정책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약함을, 자유 시장과 같이, 인간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우리가 최초로 보았듯이, 인도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인간들로서 받아들인

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상이한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공간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다양한 세계의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함께 협동할 수 있는 방식들을 모색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최소한의 강제(그리고 그것 자체도 오직 정당성이 있고 대표적인 정부들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를 가진 평화로운 세계를 원한다. 그들은 세계가 자유로운 경제 질서 안에서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발생하는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며, 모든 인간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서로의 야망들에 협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 제도들을 원한다.

그들은 정부의 힘을 국제 분쟁과 국내 억압의 원인으로 보고 권력에 대한 제한을 원한다. 그들은 자의적인 권력을 억제하면서 우리의 통치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법률들의 지배를 받게 하는 법의 지배를 요구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목적들을 추구할 자유를 지지하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사법 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할 자유를, 설사 그것이 자멸적이라 하더라도, 지지하며,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어떤 당국에 허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정치 당국이 전혀 우리들에게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적 영역을 지정하기를 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경제 질서에 대해 확신하고 있

다. 그들은 전 세계에 걸친 그것의 점진적인 확대가 더 나은 교육, 더 높은 평균 수명, 더 긴 장기근속,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개입주의가 유행하기 오래 전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은 마침내 시장 사상과 국제 무역에 개방되어 있는 가난한 지역들의 국가들에도 퍼지는 것을—그리고 도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동의 과실들을 먼 시장들에 팔 수 있게 하고, 다른 국가들의 생산자들의 전문화와 효율을 증대시키며, 가치를 창조하고 보급시키는 것을—볼 수 있다. 사람들을 부추겨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필요를 채우게 하는 가격 제도를 가지고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 성장과 인류 번영에 논리적 한계가 없다고 믿는다. 혁신, 개선,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더 낮게 하려는 모든 사람의 노력은 입법자들과 규제자들이 허용하는 만큼 균일하고, 끊임없고, 중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세계인가?

우리는 이미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가? 거의 그렇지 않다.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격변하고, 다양한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보호와 경제적 안전을 여전히 정부에 의지한다. 그리고 정부가 커짐에 따라, 공공 선택 문제가 더욱더 커진다.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자원들이 더 많을수록, 이익 집단들이 정실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고 정치가들이 그들을 달래는 것이 더욱 필수적이다.

마침내 국가들이 공공 소유권의 실패를 인식하여 자기들의 국가 산업들을 민영화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조건의 소유권은 싹트기 시작한 규제로 대체되었다. 정치가들이 더 이상 귀족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인인 체 하고 있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제해 준다는 생각에서 생활양식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권력자들에게 그들의 정당한 권한의 한계를 이해시키는 데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어쨌든 왜 자신을 제한하기를 원할까? 그러나 대개 향상된 여행, 교육 그리고 통신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자유에 대한 지지가 전 세계에 걸쳐서 퍼지고 있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여전히 로크의 유산에 의존할지 모르지만, 그것의 즐거움들 중 하나는 그것이 인간성을 어떤 죽은 모형 속에 채워 넣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의 무한한 낙관과 적응 가능성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 주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

존 로크 (1632-1704), 영국 철학자

많은 사람들은 로크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창시자로 간주한다. 스튜어트 군주제에 대한 반항 때문에 프랑스로 추방된 후에, 그는 《시민 정부 2론》(1690)을 써서, 제임스 2세의 타도를 정당화하고, 왕의 ‘신권(divine right)’을 조롱하며, 정당한 정부가 국민들과의 계약에 근거해 있지 ‘강압과 폭력(force and violence)’에 근거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가 숙고하기를, 자연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자기들 자신의 생명, 건강 그리고—그들이 천연 자원들에 ‘자기들의 노동을 섞어(mixing their labour)’ 얻는—재산을 다른 사람들에 의한 침입에 대비해 보존할 온갖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권들(natural rights)을 평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그것들을 보존할 권한을 부여받는 정부를 형성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피치자의 동의에서 얻는다. 만약 그것이 그들의 권리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것을 타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러한 사상은 미국 및 프랑스 혁명들과 토머스 제퍼슨(1743-1826) 같은 헌법 사상가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

버너드 맨더빌 (1670-1733), 영국계 화란 풍자가

맨더빌의 풍자시 《투덜대는 벌집》(1705)은, 《꿀벌의 우화》(1714)로 재출간되었는데, 자기 이익이 공업, 상업, 번영 그리고 사회적 조화를 추진한다고 암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의 가상의 벌집에서는, 꿀벌들이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만,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킬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들이 순전히 자기만족을 위해 소비할 때,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공동체 전체에 부를 보급한다. 자기 이익에 근거한 자생적 경제 질서라는 이러한 관념은 애덤 스미스(1723-90)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모형의 밑바탕이 되었고 후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에 의해 다듬어졌다.

볼테르 [프랑수아-마리 아루에] (1694-1778), 프랑스 작가

귀족적인 법률들에 의해 프랑스로부터 추방되어, 볼테르는 영국으로 갔고, 그것의 시민적 자유들, 그것의 입헌 정부, 그리고 그것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교에 이끌렸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기본적인 자유들, 관용, 자유 언론 그리고 자유 무역을 증진하는 데 바치기로 결정했다. 그의 《영국인들에 관한 철학적 편지들》(1734)은 프랑스의 반(反)자유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귀족적 강국의 타도를 역설했고 교회의 불관용을 비판했다. 바스티유에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유럽 대륙에 만연하던 억압에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

었다.

애덤 퍼거슨 (1723-1816), 스코틀랜드 사회 이론가

퍼거슨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다양하고 분업의 형태로 효율적이며 그리고 혁신적인 세계를 낳는데 이러한 것이 진보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제도들의 자생적인 본질을 설명했으며 ‘국가들은 참으로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어떤 인간 계획의 실행도 아닌 시설들과 우연히 만난다 (nations stumble upon establishments, which are indeed 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the execution of any human design),’고 썼다. 이러한 견해들은 그의 동시대인 애덤 스미스(1723-90)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애덤 스미스 (1723-1790), 스코틀랜드 철학자 및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단지 한 번만 언급하지만, 이 강력한 개념은 그 책에 가득 차 있다. 그의 동시대인 애덤 퍼거슨(1723-1816)이 관찰했듯이, 인간 제도들은 아무도 그것들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랄지 모른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인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편익에 강한 (그러나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제가 없으면,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만이 그 자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도울 때 또한 다른 사람들도 돕는다. 스미스가 보여 주었듯이, 그러한 자발적인 교환은 양쪽에 가치를 창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교환 과정으로 가능하게 된 전문화와 분업(division of labour)을 국가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도 효율과 번영의 주요 운전자로서 강조했다. 그의 영향력 있는 주장들은 위대한 19세기 자유 무역 시대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연고 자본주의와 큰 정부를 의심했다. 그는 ‘체계의 사람(man of system)’(혹은 사회 계획가)이 인간의 다양한 동기들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연적 자유의 명백하고 단순한 체계(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가 사회를 위한 더욱 지속적인 기초라고, 느꼈다.

토머스 제퍼슨 (1743-1826), 미국 혁명 지도자

제퍼슨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를 포함하여 타고난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unalienable)’ 권리들을 주었다고 믿었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그는 정부의 정당성이 국민들과 그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 사이의 계약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건 기업에서건 큰 권력 집중을 믿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절대주의에 그렇게 했듯이 종교적 불관용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1801-50), 프랑스 정치 이론가

무역이 나폴레옹의 ‘대륙 체제(Continental System)’에 의해 제한되면서, 바스티아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 시장들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그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비효율적이며 생산자 이익에 쉽게 포획되는 것으로 간주했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대한 허구(the great fiction through which everybody endeavors to live at the expense of everybody else)’로 만들었다. 그는 자기들이 태양으로부터 직면하는 경쟁에 반대해 정부 행동을 요구하는 양초 제조업자들의 속임수 청원을 가지고 보호주의를 훌륭하게 풍자했다. 정부들은 자유와 재산—정부들에 시기적으로 앞서는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는 믿었다. F. A. 하이에크(1899-1992) 같은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들에 앞서서, 그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들이 경제 활동을 조정하고 자원들을 그것들의 가장 소중한 용도들로 돌린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코브던 (1804-1865), 영국 제조업자 및 정치가

존 브라이트(1811-89)와 더불어, 코브던은 맨체스터학과(Manchester

School)의 지도자였는데, 이 학파는—애덤 스미스(1723-90)를 따라—자유 무역이 필수품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고 더욱 공평한 사회를 창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38년에, 그들은 반곡물법 동맹(Anti-Corn-Law League)을 창설해서, 빵 가격을 올리고 빈번한 부족을 야기할, 수입 곡물에 대한 보호 관세의 폐지를 (성공적으로) 강력히 추진했다. 그들은 또한 국가들 사이의 더 나은 이해와 평화를 옹호하는 운동도 했는데, 그들은 자유 무역이 이러한 것들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었다. 경제가로서, 코브던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상업을 더 크게 개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 (1806-73), 영국 철학자 및 개혁가

밀의 《자유론》(1859)은 고전적인 리버테리언 교과서로 간주되는데, 하기야 그의 자유 방어가 추상적인 자연권 이론에가 아니라 자유의 유익한 결과들에 근거해 있긴 하다. 비록 큰 정부 비판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가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많은 전선들에서 국가가 간여하는 것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였다. 자신의 공리주의 스승 제러미 벤덤(1748-1832)을 따라 밀은 선(善)이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기야 그는 또한 고급의 쾌락들이 저급의 쾌락들보다 윗자리에 있다고 믿기도 했다. 개인들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렇다. 유일하게 정당한 정부 권력 사용은 물리적 피해나 그

것의 위협을 막는 것이고, 그것들을 억제하는 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불찬성이나 그들 ‘자체의 선은, 물리적 이견 도덕적이건,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밑은 침묵을 강요당한 견해들이 옳을지 모르고 설사 그르다 할지라도 지배적인 견해들에 대한 유용한 도전이 된다고 말하면서 자유 언론을 강력히 옹호하는 주장을 하였다.

허버트 스펜서 (1820-1903), 영국 인류학자 및 철학자

스펜서는 사회 및 정치 문제들에 진화 이론을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인간 공동체들이, 원래는 단순하고 군국주의적이었지만, 복잡한 산업 사회들로 진화했으며 후자의 뛰어난 안정성과 번영 때문에 후자가 퍼졌다고 믿었다. ‘사회적 다윈주의자(Social Darwinist)’라는 라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들이 더욱 자비로운 동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자유에 의해 제한되는 각자의 자유(liberty of each, limited by the like liberty of all)’를 찬성하는 주장을 했고, 거래와 상업의 규제를 반대하여 작은 정부, 자유방임 그리고 계약의 자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유가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며 후자로 인해 사회들이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욱 이롭게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1899-1992), 영국계 오스트리아 정치학자

자기의 스승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연구된 1930년대의 하이에크의 경제학적 저작들은 호황과 불황의 순환들이 어떻게 신용의 부적절한 정부 조작으로부터 생기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집산주의, 중앙 계획, 그리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의 팽창주의적 개입주의의 지도적 비판자가 되었으며, 후자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혼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그는 자신의 관심을 정치 과학으로 돌렸으며, 그의 베스트셀러 책 《노예의 길》(1944)은 중앙 계획이 반생산적이므로 유지하는 데 점점 증가하는 강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주의의 근원들을 추적했다. 《자유의 헌법》(1960)에서, 그는 자유로운 사회 및 경제 질서를 위한 견해들을 개진했다. 그는 자율적, 자생적인 사회 질서들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새롭게 하여, 개인들이 따르는 규칙적인 행동(혹은 ‘규칙들’)으로부터 그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이러한 질서들이, 비록 계획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분산되어 있고, 부분적이며, 개인적이고, 종종 단명한—막대한 양의 지식을, 설사 그 계획 기관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명적 자만》(1988)에서, 그는 우리가 물리 과학들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러한 복잡한 질서들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망상이라

고, 그리고 그것들을 재계획하려는 의식적인 시도들이 그것들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사회적 및 경제적 재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또한 몽펠랭 소사이어티도 설립했는데, 이것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고를 위한 강력한 국제적 포럼이 되었다.

아인 랜드 (1905-82), 러시아계 미국 소설가 및 윤리학자

주로 자기의 소설들을 통해 표현해서, 랜드는 고전적 자유주의 스펙트럼의 한참 리버테리언 쪽 끝에서 급진적 개인주의(radical individualism)를 주창했다. 그녀는 생명과 자아실현을 도덕 기준으로 보았다. 그것의 밑바탕을 이루는 이성(reason)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안내해야 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장기적, 합리적 자기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들에게는 자기들의 행동들의 과실들을 가질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그들에게서 어떤 것도 강압으로 빼앗을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어긋난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갈등이 없을 것이고, 자기희생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존중하는 것이 자신들에 주는 가치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그리고 시장 활동의 규칙들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 벌린 (1909-97), 라트비아계 영국 철학자

벌린은 다원주의와 관용에 대한 20세기의 지도적인 철학적 옹호자

었다. 어떠한 단일의 모형도 인간 사상들, 가치들 그리고 역사의 엄청난 다양성과 활력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어떠한 단일의 진정한 도덕적 원칙도, 행동이 판단될 수 있는 어떠한 고정된 기준도 없다. 인생은 자유와 평등 같이 상이하고 종종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의 끊임없는 절충이다. 그는 또한 두 가지 종류의 자유를 구별하기도 했다. 존 스튜어트 밀(1806-73)의 저작에서 예증된 소극적 자유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행동할 원리를 지지한다. 적극적 자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개념 모두에 가치가 있지만, 벌린은 적극적 자유의 견해가 고전적 자유의 초석으로 남아 있는 소극적 자유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해치는 데 특정 이데올로기 창도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두려워했다.

밀턴 프리드먼 (1912-2006), 미국 경제학자

《화폐 수량설 연구》(1956)에서, 프리드먼은 정부가 통화의 가치를 안정되게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부활시켰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들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업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 호황을 주지만 장기 문제들을 초래하는 마약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화폐 준칙(monetary rule)’과 적자 지출의 종식을 추진하는 운동을 했다. 자기 아내 로즈

D. 프리드먼(1910-2009)과 함께 그는 베스트셀러 책 《자본주의와 자유》(1962)를 썼는데, 거기서 그는 자유 시장, 변동 환율, 부의 소득세, 교육 바우처 그리고 국가 연금의 민영화라는 그 당시에는 급진적이었던 견해들을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 그는 전문 직종들의 국가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유일한 사람들이 전문 직업인들 자신들이지 그들의 고객들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마약을 유죄로 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그러한 생활양식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서서히 해친다고 말했다. 《선택의 자유》(1980)라는 그의 책과 TV 시리즈는 그의 주장들을 더욱더 넓은 청중에게 가져왔다. 그 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에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자유에 의존하는 것은 위대한 사회의 완전한 잠재력을 달성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제임스 M. 뷰캐넌 (1919-2013),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텔러(1922-2014)은 공공선택학파의 지도적 인물로서, 《국민 합의의 분석》(1962)을 공저하였다. 그들은 특별한 투표자들, 이익 집단들, 정치가들 그리고 관료들이 모두 민주적 과정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적 결정들의 합리성에 의심을 퍼부었다. ‘후생(welfare)’ 경제학자들이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지적했지만, 현실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도 있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다수과가—혹은 심지어 소규모 이익 집단들의 연합도—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

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의 권력을 소수파를 착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에 반격하는 가장 좋은 길은 차후의 정치적 결정들이 행해질 규칙들을 정하는 헌법적 해결을 통하는 것이라고 뷰캐넌은 믿었다. 이상적으로는, 아무도 법률과 규정에 관한 차후의 결정들에서 자신을 다수의 독재에 개방한 채 놔둘 필요가 없도록 그러한 헌법적 규칙들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

로버트 노직 (1938-2002), 미국 철학자

노직의 《무정부 상태,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1974)는 자유의 철저한 도덕적 옹호를 제공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취급해야지 우리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보편적 원칙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방식으로만 행동해야 한다는 이마누엘 칸트(1724-1804)의 ‘정언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을 가지고 시작했다. 노직이 단언하기를,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신체, 재능 그리고 노동을 소유하는데, 아무도 이것들을 강압으로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재분배적 세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경우건, 부는 ‘공정하게(fairly)’ 분배하도록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개인들의 재능, 기업가 정신 그리고 노력을 통하여 창조되어야 한다. 만약 부가, 강제 없이, 정당하게 획득되고 이전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들 사이의 부의 분배는, 설사 그것이 불평등할지라도, 역시 정당함에 틀림없다. 국가의 역할은 오로지 강압, 도둑질, 사기 그리

고 계약 위반에 대해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들 자신의 상이한 목적들과 야망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야경꾼 국가는—프랑스 혁명 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듯이—무정부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민간 분쟁 해결 기관들을 창설함으로써, 자기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단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11 고전적 자유주의 인용들

마그나 카르타

우리는 또한 우리의 왕국의 모든 자유민들에게, 우리와 영원히 우리의 상속인들을 위해, 우리와 영원히 우리의 상속인들의, 아래에 쓴 모든 자유들을, 그들과 그들의 상속인들이 가지고 소유하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 . . 어떠한 병역 면제세(scutage)도 국왕에게 바치는 세금(aid)도, 우리의 왕국의 보통의 협의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의 왕국에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 . . 자기 동료들의 합법적 판결과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자유민도 체포해서 구금하거나 불법으로 빼앗거나 추방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보다 앞서 가지도 그를 앞서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 . . 권리나 정의를 우리는 아무에게도 팔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절하거나 미루지 않을 것이다. . . . 모든 상인들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영국으로부터 출국하고, 영국에 입국하며, 거기에 체재하고, 예로부터의 올바른 관습에 따라 사고팔기 위해, 모든 나쁜 통행세들로부터 면제되어, 수로로뿐만 아니라 육지로도 돌아다닐 권리를 가져야 한다. . . .

—영국의 존 왕 (1166-1216) (강제당하여)

자연권

자연권은 . . . 자기 자신의 본질, 즉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다.

—토머스 홉스 (1588-1679), 《리바이어던》

자연 상태는 그것에 적용되는 자연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지운다. 그리고 그 법(法)인 이성은 그것을 그저 참고할 뿐일 모든 인류에게,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이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의 생명, 건강, 자유 혹은 재산 . . . 의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존 로크 (1632-1704), 《시민 정부 2론》

우리는 이러한 진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들이 자기들의 창조주에 의해 일정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것들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는 것을, 자명하다고 여긴다.

—토머스 제퍼슨 (1743-1826), 《미국 독립 선언》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은 사람들이 법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선 사람들에게 법률들을 만들게 한 것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이 미리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1801-50), 《법》

개인들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나 집단이 (그들의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고는) 그들에 대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권리들이 너무 강력하고 광범위해서 그것들은, 오히려, 국가와 그것의 관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질문을 제기한다.

—로버트 노직 (1938-2002), 《무정부 상태,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제한된 정부

왕들과 대신들이 민간인들의 경제를 돌보아주어 그들의 비용을 억제하는 척하는 것은... 최고의 뻔뻔함이고 주체넘음이다... 그들은 자신은 항상 그리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회에서 가장 씹씹이가 해픈 사람들이다. 그들더러 자기 자신의 비용을 잘 돌보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민간인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맡길지 모른다. 만약 그들 자신의 낭비가 국가를 망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민들의 낭비도 결코 국가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 (1723-90), 《국부론》

정부의 권력들은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수중에 들어간다. 그것들을 위임받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남용할 무한한 유혹을 느끼는데, 만약 그것들이 예방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남용하는 것을 결코 중지하지 못할 것이다.

—제임스 밀 (1773-1836), ‘국가의 상태,’ 《런던 리뷰》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액턴 경 (1834-1902),

《크레이턴(Creighton)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창설하는 정부가 우리가 정부를 수립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할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자유는 희귀하고 연약한 식물이다. . . .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렇지만 권력을 정치적 수중에 집중시킴으로써, 그것은 또한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 . . 권력은 다른 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형성하기도 할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 (1912-2006)이

로즈 D. 프리드먼 (1910-2009)과 함께, 《자본주의와 자유》

자유인에게,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모임이지, 그들 외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는 공통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공통의 전통들에 충실하다. 그러나 그는 정부를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간주하지, 정실과 선물의 교부자로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봉사할 주인이나 신으로도 간주하지 않는다.

—밀턴 프리드먼 (1912-2006)이

로즈 D. 프리드먼 (1910-2009)과 함께, 《자본주의와 자유》

자생적 질서...

대중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움직임은, 심지어 계몽 시대로 불리는 시대에서도, 미래에 대해 똑같이 맹목적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국가들은 참으로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어떠한 인간 계획의 실행도 아닌 시설들을 우연히 만난다.

—애덤 퍼거슨 (1723-1816), 《시민 사회 역사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별로 더 많이 소비하지 않고, 그들의 타고난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개선들의 산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지구가 자기의 모든 거주자들 사이에 균등한 부분들로 나누어졌더라면 이루어졌을 것과 거의 똑같은 생활필수품 분배를 이룰 것인데, 따라서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도,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며 종의 증식의 수단을 제공한다.

—애덤 스미스 (1723-90), 《도덕 감정론》

... 자비로운 안내...

그러므로 현인은 말했다. ‘나는 (목적은 갖고) 어떤 일도 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백성은 저절로 바뀔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겠는데, 그러면 백성은 저절로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에 관해 수고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야망을 나타내지 않겠는데, 그러면 백성은 저절로 원초적

인 단순성에 도달할 것이다.’

—노자(기원전 600년경)

자유주의는... 전반적인 사회 질서의 고의적인 통제를, 그 상세한 사항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자생적 질서의 형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규칙들의 시행에 국한한다.

—F. A. 하이에크 (1899-1992), 《규칙과 질서》

... 대(對)계획과 통제

체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발한 착상에 매우 똑똑한 체하기 쉽고, 종종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통치 계획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아주 반해서, 그는 그것의 어떤 부분으로부터의 최소한의 이탈도 참을 수 없다... 그는 손이 장기관의 상이한 말들을 배치하는 것만큼 쉽게 자기가 거대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 그는 인간 사회의 거대한 장기관에서는 모든 단일의 말이 자기 자신의 운동의 원리를, 입법부가 그것에 일으키기로 선택할지 모르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운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 (1723-90), 《도덕 감정론》

[거래 제한이 없으면] 자연적 자유의 명백하고 단순한 체계가 저절로 수립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방

식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된다. . . . 주권자는 어떤 인간 지혜나 지식도 결코 충분할 수 없을 의무, 민간인들의 산업을 감독하고 그것을 사회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고용들 쪽으로 돌리는 의무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

—애덤 스미스 (1723-90), 《국부론》

이것은 계획을 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관한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계획이 중앙 집중적으로, 전 경제 체제에 대해 하나의 당국에 의해 행해져야 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져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이다.

—F. A. 하이에크 (1899-1992), ‘사회에서 지식의 사용’

우리가 사회를 현명하게 개조하려고 시도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그것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고 믿을 때조차도 우리가 실수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은 인간 문명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물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의 힘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그것의 힘들들의 작동을 우리가 그저 쉽게 하고 거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인, 작용하는 전체(working whole)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F. A. 하이에크 (1899-1992), 《자유의 헌법》

정의와 법치

정당하지 않은 것은 법이 아니다. 그리고 법이 아닌 것은 준수되어서는 안 된다.

—앨저넌 시드니 (1623-83), 《통치론》

만약 법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법이 끝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폭정이 시작된다. 법이 자기에 준 권력을 초과하고 자기의 통제 아래에 있는 강압을 이용하는 당국자는 누구든지... 그 점에서 행정관(magistrate)이 되기를 멈추고, 권한 없이 행동하므로, 강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다른 사람과도 같이, 반대에 부닥칠지 모른다.

—존 로크 (1632-1704), 《시민 정부 2론》

신민의 정치적 자유는 각자가 자기의 안전에 관해 가지고 있는 견해로부터 생기는 마음의 평정이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같은 사람이나 같은 행정관 조직에 통합될 때, 자유가 존재할 수 없는 데, 왜냐하면 동일한 군주나 의회가 전제적인 법률들을 제정하여 그것들을 전제적인 방식으로 집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 (1689-1755), 《법의 정신》

대중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 자유의 보존이다. 왜냐하

면 (프랑스에서 왕권에 의해 날마다 실행되듯이) 일단 자기나 자기 관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든 자의적으로 투옥하는 것이 어떤 최고 행정관의 수중에든 맡겨지면 곧 모든 다른 권리들과 면제들이 종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블랙스톤 경 (1723-80), 《영국법 논평》

만약 [정의가] 제거된다면, 인간 사회의 큰, 거대한 조직은, 기르고 부양하는 데 이 세상에서, 만약 내가 그렇게 말해도 좋다면, 자연의 특유하고 소중한 보살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조직은, 순식간에 가루로 부서짐에 틀림없다.

—애덤 스미스 (1723-90), 《도덕 감정론》

꿀벌들로 가득 채워진 광대한 벌집,
꿀벌들은 호사스럽고 편안하게 살았지. . . .
그들은 전제 정치의 노예도 아니었고,
방종한 민주주의로 통치되지도 않았고;
통치한 왕들은 학대할 수 없었지,
그들의 권력이 법률들로 제한됐기 때문이지.

—버너드 맨더빌 (1670-1733), 《꿀벌의 우화》

경제적 자유

정부는 항상 강제와 강압을 의미하고 불가피하게 자유와 반대다.

정부는 그것의 범위가 소위 경제적 자유의 보존에 적절하게 국한될 때에만 자유의 보증자이면서 자유와 양립될 수 있다. 시장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최선의 의도를 가진 헌법과 법률의 조항들도 사문(死文)으로 남게 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1881-1973), 《인간 행동》

우리의 경제적 업무에서 통제받는 것은... 모든 업무에서 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F. A. 하이에크 (1899-1992), 《노예의 길》

어떠한 큰 요소의 개인의 자유, 보통 시민들의 뜻대로 되는 물질적 안락에서의 상당한 정도의 진보, 그리고 미래에 더 진보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는 어느 곳이든, 거기서 우리는 또한 경제 활동이 주로 자유 시장을 통해 조직된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밀턴 프리드먼 (1912-2006)과
로즈 D. 프리드먼 (1910-2009), 《선택의 자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가운데서 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자유의 대의를 촉진하는 데 완전한 자유 무역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 (1912-2006)과
로즈 D. 프리드먼 (1910-2009), 《선택의 자유》

개인적 자유

누구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할지 모르는 특유한 방식으로 행복하도록 나를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나 다 자신에게 최선인 것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렇고, 그때에는 그들의 자유(Liberty)가 가능한 보편적인 법칙들에 따라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 권리(Right of Liberty)와 일치할 수 있다.

—이마누엘 칸트 (1724-1804), 《정치학 원리》

조금의 일시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얻을 자격이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 (1706-90),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게 대한 회답》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 자신의 선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자유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들을 얻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렇다.

—존 스튜어트 밀 (1806-73), 《자유론》

문명 공동체의 어떤 성원에게든 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다. 그 자신의 선은, 물리적이건 도덕적이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존 스튜어트 밀 (1806-73), 《자유론》

자유는 남자와 여자의 가슴에 있다. 그것이 거기에서 죽을 때, 헌법도, 법률도, 법원도 그것을 구할 수 없다....

—러니드 핸드 판사 (1872-1961), ‘자유와 정신,’ 1944년 뉴욕 연설

자유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특정 상황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결과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악을 위해서보다 선을 위해서 더 많은 힘들을 방출할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 있다.

—F. A. 하이에크 (1899-1992), 《자유와 헌법》

평등을 자유보다 우선하는 사회는 어느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사회는 양쪽 다를 높은 정도로 얻을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 (1912-2006),
《선택의 자유》 (TV 연속물의 1회분)

나는 마약을 합법화하는 것을 찬성한다. 나의 가치 체계에 따르면,

만약 사람들이 자살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온갖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약으로부터 오는 대부분의 피해는 마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생긴다.

—밀턴 프리드먼 (1912-2006),
존 미친슨의 《만약 무지가 더 없는 행복이면,
행복한 사람들이 왜 더 많이 없을까?》에서 인용

나는 무정부주의자들에게 행운을 비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동하고 있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게임의 규칙들을 시행하는 데 정부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 우리는 계약을 확인하고 손해 배상을 판결할 사법 제도를 유지하는 데 정부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자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치안을 제공하는—데 정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기 하고 있어야 하는 많은 이러한 일들에 실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 많은 일들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 (1912-2006), 《플레이보이》 인터뷰

정치적 자유

정치 저자들이 금언으로 확립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어떤 통치 제도든 고안할 때 그리고 헌법의 여러 견제들과 통제들을 설정할 때 모든 사람이 악한으로, 그의 모든 행동들에서 사익 말고는 어떤 다

른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흄 (1711-76), 《도덕론, 정치론, 문학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한 단어, 평등 말고는 공통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차이점을 주목하라. 민주주의는 자유에서의 평등을 추구하
지만, 사회주의는 억제와 예속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알렉시 드 토크빌 (1805-59), 의회 연설, 1848년

국가는 모든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살려고 하는
거대한 허구다.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1801-50), 《국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국내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공리주의적 방안이다. 그 자체 그것은 결코 잘못이 없거나 확
실한 것이 아니다.

—F. A. 하이에크 (1899-1992), 《노예의 길》

12 고전적 자유주의 역사 연표

- 930 세계 최초의 의회, 알싱(Althing)이 아이슬란드에서 창설되다.
- 973 앵글로-색슨 왕 에드거가 알려져 있는 최초의 대관식 선서를 하여, 국가를 방위하고, 법을 유지하며, 정당하게 통치하겠다고 서약하다.
- 1014 앵글로-색슨 왕 에설레드(Aethelred)가 예로부터의 법들을 유지하고 위탄(Witan)의 조언으로 지도받겠다고 동의하다.
- 1066 앵글로-색슨의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가 노르만의 영국 침입과 봉건제의 도입으로 끝나다.
- 1215 압력을 받아, 존 왕이 마르나 카르타에 동의하여, 재산권들이 다시 언명되고 ‘국법(law of the land)’ 아래에서 군주제가 제한되다.
- 1225 잉글랜드의 헨리 3세가 자발적으로 새 형태의 마그나 카르타를 다시 발포하다. 그것은 영국 헌법의 기초 문서가 된다.
- 1265 시몽 드 몽포르가 대 의회(Great Parliament)를 형성하여, 왕의 결정들을 의회에 자문해서 추밀원의 승인을 받게 하다.
- 1381 농민 반란(Peasants' Revolt)이 잉글랜드의 예로부터의 권리들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다.
- 1517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Protestant Reformation)을 점화하

고, 부수적으로 개인주의를 더 크게 촉진하다.

1651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강력한 정부를 요구하지만, 국민들이 심지어 국가에 대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계약에 근거한 국가를 옹호하고 국민들의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right of nature)’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다.

1687 윌리엄 펜이 마그나 카르타의 최초의 미국판(版)을 출판하다.

1688 명예혁명에서, 제임스 2세 왕이 타도되고, 의회가 새로운 주권자들 윌리엄과 메리에 대한 조건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왕권의 한계들을 공포하다.

1689 대영 제국의 권리 장전이 정부의 계약적 본질을 강조하고, 왕권의 한계를 정하며, 의회에서의 자유 언론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선거를 규정하며, 보복의 두려움 없이 당국에 청원하는 권리를 주장하다.

1690 존 로크가 자신의 《시민 정부 2론》을 출판하여, 계약적 정부의 사상에 대한 철학적 기초들을 제공하고 제임스 2세 왕의 타도를 정당화하다.

1705 버너드 맨더빌이 자기 이익의 사회적 편익들에 관한 시, 《투덜대는 벌집》을 출판하다.

1720 존 트렌처드와 토머스 고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촉진하는 신문 에세이, 《케이토의 편지》를 출판하기 시작하다.

1734 볼테르가 《영국인들에 관한 철학적 편지들》에서 프랑스의 반자유주의적 문화에 대해 욕설을 퍼붓다.

1748 샤를 드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출판하여, 입법부, 행

정부 그리고 사법부로의 권력 분립을 권고하다.

1767 애덤 퍼거슨의 《시민 사회사》가 제도들이 어떻게 ‘인간 행동의 결과지만 어떠한 인간 계획의 실행도 아닐(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the execution of any human design)’ 수 있는지 서술하다.

1776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 영국 정부가 미국과의 사회 계약을 깨뜨렸다고 비난하고, 혁명을 선동하다.

1776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하여, 자기 이익, 자발적인 교환, 자유 무역 그리고 분업 모두가 어떻게 경제적 진보를 추진하는지 보여주다.

1776 영국 정부가 자기 시민들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un-alienable rights)’을 침해했다고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다.

1780 존 애덤스의 매사추세츠 주 헌법이 ‘그것이 법치이지 인치가 아니도록(to the end it may be a government of laws, and not of men)’ 권력 분립을 정식으로 기입하다.

1785 《도덕 형이상학 기초》에서 이마누엘 칸트가 다른 사람들이 그 자체 목적으로서 취급되어야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정언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을 개설하다.

1789 미국 헌법이 발효되어, 권력 분립과 제한된 정부를 소중히 보호하다.

1789 프랑스의 혁명 정부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출판하여 무해 규칙, 적법 절차, 재산권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나 이런 원칙들이 이내 포기되—다.

- 1791 미국 권리 장전이 비준되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유로운 결사, 자유로운 출판, 무기 휴대 권리, 그리고 부당한 채포와 몰수로부터의 자유 같은 기본권들을 열거하다.
- 1833 고전적 자유주의의 행동주의로 대부분의 대영 제국 전체에 걸쳐 노예제가 폐지되다.
- 1838 리처드 코브던과 존 브라이트가 곡물에 대해 해로운 보호주의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곡물법 동맹을 결성하다.
- 1843 제임스 윌슨에 의해 창간된 《이코노미스트》가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 정부의 옹호자가 되다.
- 1843 노예제가 이제 대영 제국 전체에 걸쳐 폐지되다.
- 1846 곡물법이 폐지되다.
- 1849 프레데리크 바스티아의 《법》이, 개인들이 자기들의 신체,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킬, 신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옹호하고, 정부와 법이 이런 권리들을 침해한다면 정부와 법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다.
- 1851 《사회 정학》에서, 허버트 스펜서가 모든 개인들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데 한정된 국가를 옹호하는 진화론적 주장을 하다.
- 1859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에 대한 자신의 고전적인 옹호, 《자유론》을 출판하다.
- 1927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자유주의》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원

리들을 거듭 주장하는데, 하기가 그것이 1962년이 되어서야 영어로 번역된다.

1943 아인 랜드가 자기 달성(self-fulfilment)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자신의 철학적 소설 《파운틴헤드》를 출판하다.

1944 F. A.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을 출판하여, 전체주의의 뿌리가 어떻게 중앙 계획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강제에 있는지 보여주다.

1945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카를 포퍼가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다양한 견해들과 점진주의적 변화를 가진 ‘열린사회(open society)’의 개념을 개설했다.

1947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고전적 자유주의 학자들이 몽펠랭 소사이어티의 첫 회합을 위해 스위스에 모이다.

1957 아인 랜드가 엄청난 영향력 있는 《움츠린 아틀라스》를 출판하여, 개인의 노력이 번영을 창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다.

1958 《자유와 두 개념》에서, 이사야 벌린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별하고, 후자가 특정 이데올로기 주창자들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하다.

1960 F. A. 하이에크가 《자유와 헌법》을 출판하여,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의 뿌리, 원리 그리고 제도를 개설했다.

1962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킬리의 《국민 합의의 분석》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자기 이익의 문제들을 지적하다.

1962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 시장, 변동 환율, 부의 소득세, 교육 바

우처 그리고 그 당시 급진적이라고 생각된 기타 아이디어들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와 자유》를 출판하다.

1973 머리 로스버드가 자연권 전통을 현대 사회 및 정치 쟁점들에 강건하게 적용한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를 출판하다.

1974 자유의 강건한 옹호인, 로버트 노직의 《무정부 상태,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가 재분배적 조세를 개인적 재산에 대한 공격으로서 반대하다.

1980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 TV 시리즈가 고전적 자유주의 주장들을 새롭고 더 넓은 청중에 가져오다.

1988 F. A. 하이에크가 《치명적 자만》을 출판하여, 인간 사회의 자생적 질서가 매우 복잡해서 어떤 개별 계획가도 결코 그것을 이해하고 감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다.

1989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중앙 집중적으로 계획된 소비에트 블록의 경제적 후진성과 사회적 문제들을 드러내다.

13 추가적인 읽을거리

입문

Ashford, N. (2013), *Principles for a Free Society*, Stockholm: Jarl Hjalmarson Foundation. 자유 사회와 자유 경제가 근거하는 원칙들에 관한 철저하고 짧은 해설.

Butler, E. (2011), *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 London: Adam Smith Institute.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에 관한, 그리고 그의 윤리학에 관한, 요약

Butler, E. (2013), *Foundations of a Free Society*,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자유, 권리들, 관용, 법의 지배 그리고 제한된 정부와 같은, 자유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원리들에 관한 쉬운 개설.

Friedman, M. with R. D. Friedma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급진적인 정책 처방들을 가진, 자유 사회와 자유 경제의 옹호에 관한 고전적 개설.

Friedman, M. and R. D. Friedman (1980), *Free to Choos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동일한 이름의 텔레비전 시

리츠에 토대를 둔 매력적인 자유 사회 옹호.

Hannan, D. (2013), *How We Invented Freedom and Why It Matters*, London: Head of Zeus. 앵글로-색슨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들의 노련한 추적.

Palmer, T. G. (ed.) (2011), *The Morality of Capitalism*, Arlington, VA: Students for Liberty and Atlas Foundation. 고전적 자유주의 도덕, 협동, 진보, 세계화 그리고 문화에 관한 에세이들의 간결한 수집.

Palmer, T. G. (ed.) (2013), *Why Liberty*, Arlington, VA: Students for Liberty and Atlas Foundation. 리버테리언 및 고전적 자유주의 주제들에 관한 에세이들의 수집.

Palmer, T. G. (ed.) (2014), *Peace, Love, and Liberty*, Ottawa, IL: Jameson Books. 사회적 및 경제적 자유가 어떻게 국제적 평화를 증진하는지를 보여주는 짧지만 광범위한 시리즈의 에세이들.

Pirie, M. (2008), *Freedom 101*, London: Adam Smith Institute. 한 페이지에서 한 개씩 논파되는 101개의 자유 경제 및 자유 사회 반대 논거들.

Wellings, R. (ed.) (2009), *A Beginner's Guide to Liberty*, London: Adam Smith Institute. 시장들, 재산권들, 자유, 정부 실패, 금지들 그리고 국가 없는 복지의 알기 쉬운 설명들.

개관

- Butler, E. (2011), *Milton Friedman: A Concise Guide to the Ideas and Influence of the Free Market Economist*, Petersfield: Harriman House. 유명한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경제 및 사회사상들에 대한 쉬운 소개.
- Butler, E. (2012), *Friedrich Hayek: The Ideas and Influence of the Libertarian Economist*, Petersfield: Harriman House. 자생적인 사회에 관한 현대 사고의 많은 부분을 개발한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 과학자에 대한 쉬운 소개.
- Butler, E. (2012), *Public Choice - A Primer*,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정부 실패, 민주주의 체제들에서의 자기 이익 문제들, 그리고 헌법적 억제들의 옹호에 관한 간단한 설명.
- Cranston, M. (1967), "Liberalism,"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P. Edwards), New York: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pp. 458-461.
- Kukathas, C. (2003), *The Liberal Archipelago*, Oxford University Press. 다양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소수파 권리들의 강력한 옹호.
- Meadowcroft, J. (ed.) (2008), *Prohibitions*,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많은 상이한 생활양식 선택들에 대한 정부 통제에 반대하는 강력한 집합의 논거들.
- Smith, G. H. (2013), *The System of Liberty: Themes in the History*

of *Classical Lib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질서, 정의, 권리들, 무정부 상태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같은 주요 쟁점들에 관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역사와 상이한 견해들.

고전

Bastiat, F. (2001[1849]), *Bastiat's 'The Law,'*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프랑스 정치가이자 작가에 의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고전적 진술.

Berlin, I. (1969),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그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구별하는 논문.

Hayek, F. A. (1944), *The Road to Serfdom*, London: Routledge. 중앙 계획과 제한받지 않는 정부의 위험들에 관한 고전적인 짧은 전시(戰時) 해설.

Hayek, F. A.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자유주의 사상들의 기원들과 자유 사회가 수립되는 기반이 되는 원칙들을 추적하는 방대한 책.

Hayek, F. A. (1988), *The Fatal Conceit* (3권),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우리의 자생적인 사회 및 경제 질서들을 보강하는 원칙들과 그것들을 중앙에서 계획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논거의 진술.

Hazlitt, H. (1946), *Economics in One Lesson*, New York, NY:

Harper & Brothers.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에 관한 최고의 입문서로 인정된다.

Locke, J. (1960) [1689],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P.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3-446. 계약적이고 제한된 정부의 개념에 대한 그리고 그 계약을 위반하는 정부를 타도하는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Mill, J. S. (2008) [1859], "On Liberty," in *On Liberty and Other Essays* (ed. J. S. M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자유, 무해 원칙, 자유 언론, 제한된 정부, 자연적 정의 그리고 관용의 옹호에 관한 고전적 교과서.

Popper, K. (1945),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Routledge. 자유 사회의 철학적 옹호와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계획하려는 시도들의 통렬한 비판.

선택된 웹 링크

애덤 스미스 연구소 블로그—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쟁점들에 관한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들의 빠르게 변하는 블로그: <http://www.adamsmith.org/blog/>

케이토 연구소—연구와 매체 논평을 통해 자유주의 철학을 보급하는 데 헌신하는 지도적인 워싱턴 싱크탱크: <http://www.cato.org>

IEA TV—현안 쟁점, 연구, 책, 사건 그리고 쟁점에 관한 경제 문제

연구소로부터의 짧은 비디오들: <http://www.ica.org.uk/tv>

자유를 배우기(Learn Liberty)—경제학, 정치학, 법, 역사 그리고 철학에 관한 고전적 자유주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인문 과학 연구소(Institute for Humane Studies)의 짧은 비디오들: <http://www.learnliberty.org/videos/>

자유 동맹(Liberty League)—영국에서 학생들과 젊은 전문가들 사이에 친자유 견해들을 촉진하고, 영국에서 가장 큰 연례 자유 시장 콘퍼런스를 운영한다: <http://uklibertyleague.org>

머케이터스 센터—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를 생산하며,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생산함으로써 학계와 현실 세계 쟁점들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한다: <http://mercatus.org>

온라인 자유 도서관(Online Library of Liberty)—여러 시대 동안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로부터의 주요 저서들과 논문들을 크게 다루는, 자유 기금(Liberty Fund)의 거대한 자원: <http://oll.libertyfund.org>

이성 재단(Reason Foundation)—시장 견해들과 정책 연구에 관한 저명한 잡지를 발간하는 지도적인 미국 싱크탱크: <http://reason.org>

자유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Liberty)—전 세계에 걸쳐 1,350개 이상의 단체들에서 10만 명을 넘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친자유 학생 단체들의 네트워크: <http://studentsforliberty.org>

IEA에 대해

이 연구소는, 유한 합자, 연구 및 교육 자선 단체(No. CC 235 351)이다. 그것의 사명은 시장들이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자유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IEA는 자신의 사명을 다음을 통해 달성한다.

- 고품질의 출판 프로그램
- 콘퍼런스, 세미나, 강의 그리고 기타 이벤트들
- 중고등 및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 활동
- 매체 도입과 출연의 중개

1955년 고(故) 앤터니 피셔 경에 의해 설립된 IEA는 교육 자선 단체이지, 정치적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단체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어떤 선거나 주민 투표에서도 혹은 어떤 다른 때에도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것의 재원은 출판물의 판매, 콘퍼런스 참가비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로 조달된다.

자신의 메인 시리즈의 출판물들 외에도 IEA는 또한 계간지 《경제 문제(Economic Affairs)》도 출판한다.

IEA는, 자신의 업무에서, 유명한 국제적 대학 자문 위원회와 명예 연구 위원들의 저명한 패널의 도움을 받는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그들은 출판

될 만한 IEA 출판물들을 논평하며, 그들의 논평들은 저자들에게 익명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모든 IEA 페이지들은 지도적인 학술 잡지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한 독립적 심사 과정을 밟는다.

IEA 출판물들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널리 수업에서 사용되고 교재로 채택된다. 그것들은 또한 전 세계에 걸쳐 팔리기도 하고 종종 번역/재간된다.

1974년 이래로 IEA는 70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100개의 비슷한 기관들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것들은 모두 독립적이지만 IEA의 사명을 공유한다.

IEA의 출판물들에서 표현된 견해들은 필자들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이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들도 아니다.

...

이 연구소는 자신의 출판 프로그램과 기타 업무를 위해 고(故) 로널드 코스 교수의 관대한 회사(喜捨)로부터 온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린다.

옮긴이에 대해

황수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정년퇴임하였으며,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1991년, 1997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소(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2014년) 교환 교수로 연구하였다. 관심 분야는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이며, 이 방면의 역서들을 다수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에이먼 버틀러가 쓴 『공공선택론 입문』, 『루트비히 폰 미세스 입문』,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 입문』 그리고 『자유 사회의 기초』가 포함되어 있다.